

속초예술

SOKCHO ART MAGAZINE

한국예총속초지부

제 2 호
2001년

한 해의 수확을 마치고 풍요로운 가을 햇살이 점점 더 그리워지는 만추지절(晩秋之節)에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해 온 예총 속초지부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속초예술誌>를 발간하게 됨을 10만 속초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무릇 '21세기는 문화의 세기'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고, 문화발전을 위해 숭선 수범하는 이는 의외로 적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풍류와 멋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시(詩), 서(書), 화(畵)에 능통한 이는 언제 어디서고 귀한 손님으로서 후한 대접을 받았으며, 예술을 통해 마음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즐길 줄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조상들의 멋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대를 살아오는 우리들은 수차례의 역사적 암흑기와 고도의 산업화 속에 일상에 쫓겨 점차 내면의 멋보다는 물질을 쫓아 온 것이 어찌보면 근·현대사를 살아오는 우리들의 자화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리의 멋과 가락, 풍류를 위해 음악, 미술, 연극, 연예, 문학, 사진 등 다양한 예술적 장르를 통해 문화적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문화예술인들의 덕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늦은 감은 있으나 지난해부터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한군데 담아 전할 수 있는 지면(紙面)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한단계 끌어올린 일이라 자평(自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번 <속초예술誌 제2호> 발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장규호(張奎皓) 지부장님을 비롯한 각 문화예술인들의 노고에 지면으로나마 거듭 감사를 드리며, 예총 속초지부의 발전과 문화예술인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 12

속 초 시 장

紙上詩選

파꽃으로 피어나거라

권정남

흰 눈발 근정에 반 댄고 그 서서
 입학식 하는 땀이
 찬바람이 흰 잔디 줄로 서 있는 모습이
 해산 좋은 5월 아침 이랑 고를
 파발이 파꽃들이자나
 둥글고 흰 꽃에 여문 씨앗이
 너희 눈동자처럼 짝짝 박혀 있고
 벚꽃 희미함이 별처럼 어깨 위를 넘나든다
 3월 눈발 지 끝
 백학이 꿈꾸며 날개 짓 하듯
 눈복신 꽃대궁으로 흔들리는 파꽃 무리로 서서
 땅 밑 수액을 빨아올리며
 너는 인생이 첫 꽃 문은 여느자나
 세월이 나이테를 휘감아 쥐고
 나를 땀은 너를 정교하게 빚으며
 벚치게 달려온 날들 너를 지켜본다
 세상 어디쯤에서
 너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너는 없어서는 안될 양념이 되어야 한다.
 눈발 이랑에서도 가는 곳마다
 땀이 너는
 향내 진한 파꽃으로 피어나길 빈다.





기다림 2

이선국

다짐했던 그 이 얼굴은
보드라운 백사장 끝에서
끝내 그리움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에
여전히 깊은 미소가
푸른 파도처럼 하얗게 밀려옵니다.

마음을 다 잡은 수목
위로한 섬이 되는 날
향기로운 바람바람 앞에서

눈빛신 기운해산에
눈물로 순화하며
하늘빛 흐르는 파란 눈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 빈자리가
이렇게 내 안의 눈물로 남고
아직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

어둠이 눈을 뺏으면
나는 산도시 눈을 감고
그 긴 기다림으로 이 기운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갈천 그림 학교

채재순

총계 꽃밭에 잠낭해들이
 봄벌에 달구어져 있다
 구름 그림 학교 아이들 기다리느라
 두근거리며 뭉뚱 제비꽃,
 돌 틈에서 우뚱저니 앉아있던
 바위채송화까지도
 서로를 눈명하고,
 모처럼 악지찌껌해진 운동장 내려다보며
 살아있는 것들이 목소리들 함께 뚫어간다
 아이들 달음박질로
 비로소 활짝 피어나는 학교가 있다
 이곳에 으면 아생이 되는 아이들
 뚫뚫 그리며 그 등이 찢그만 생이
 꿈틀거린다
 꽃피우고자 하는 마음들로
 꽃시태 지고 있는 만삭의 학교
 산 그림자 슬며시 내려와 이따에 땀한
 땀방울 식혀준다
 그리고 삶은 하루를 관상한 후
 싱싱해져 돌아가는 아이들
 그 뒤에도 으레으레 눈복신 갈천 그림 학교.





떠도는 나무

박명자

내 가슴 속 항복지에는 짐 없이
떠도는 나무 한 그루 있다

그는 생명이 꽃은 열음 박힌 몸으로
저를 향아름 울며 산다녔다

작비작비 이듬이 강 댄방로 건너오며
같은 상처 두 자위 비교하지 않았다

비안개 덮인 여름 들판에서는
모두가 한 세상처럼 죽음과 삶을 뛰어넘어
서로 서로 손을 잡았지만
나무는 저 홀로 생각이 그트머리를
흐르는 바람에 분였다

나무는 가끔씩 질없이 앞새를 흔들어
홀로이 그림자를 하늘에 심었다

내 마음 빈터에는 오랜 시간
어깍죽지 등썽이며 울며 흐르는
나무 한 그루 사느니





시(詩)의 이해

박 화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장)

자수정을 통하여 보는 세계나, 프리즘을 통하여 보는 세계는 무지개 빛깔처럼 아름답다. 볼록렌즈를 통하여 보는 사물에는 확대된 허상(虛想)이 머물게 되고 때로 초점을 맞춘 곳에서는 참다운 생명의 불길을 지피게 한다. 무엇을 쓴다는 것, 그것이 설령 시든 수필이든, 한 장의 편지이든지 어쨌든 간에 자신의 진심을 글로 옮겨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특히, 시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이를 통하여 여러 시론과 접근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동양의 문헌에 나타나 있는 여러 시론들〉

◇. 說之 故言之 言之不足 故長言之 長言之不足

故嗟歎之 嗟歎之不足 故不知手之舞之也

(즐거워서 말을 한다.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므로 노래를 읊는다. 노래를 읊어도 만족하지 못하므로 노래를 질러 부른다. 노래를 그렇게 불러도 만족하지 못하므로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직이고 발을 굴러 춤을 춘다.)

禮記의 樂記 中에서-

◇. 詩三百 一言而蔽之曰 思無邪

(시 3백수는 한마디로 말해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는 것' 이다.)

논어의 위정편에서-

◇ 誦詩三百, 弦詩三百, 歌詩三百 舞詩三百

(시 3백을 읊고 시 3백을 연주하며 시 3백을 노래하고 시 3백을 춤추었다.)

墨子の 教詩以樂에서-

◇ 古有采 詩之官 王者所以風俗 知得失 自考正

(옛날에는 시를 채집하는 관리가 있었다 왕은 이 시로써 풍속을 보고 정치의 득실을 알아 스스로 상고하며 바르게 하였다.)

漢書의 采詩之官에서-

◇. 옛날에는 樂의 이해로 시를 해명하는데 그 관점의 바

탕이 되었다. 墨子の 教詩以樂에서 말하고 있듯이 당시에는 樂으로 시를 가르쳤다. 시를 읊었고 시를 노래했으며 시를 연주했으며 시를 춤추었다.

〈서양문헌에 나타나 있는 여러 시론들〉

◇시라는 예술의 영역을 밝히고 도덕과 정치의 연관을 떠나서 시의 본질적인 속성을 검토하면 인간의 사고를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도 세 번째 만들어 내는 사고에 관한 학문이 시를 구체적으로 접근하게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 '시의 정의의 역사는 오진의 역사'다.

- T. S 엘리엇의 '사상의 감성화'에서

이는 시의 본질을 밝히려 하였지만 저마다 자기류의 시론을 피력하여 한갓 있을 수 있는 가설을 말할 뿐이다.

◇시는 하나의 숭고한 미에 대한 열망이다.

보들레르-

◇시는 존재하는 것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는 영감을 받는 일종의 신술이다.

에즈라파운드-

시의 세계란 본래 진실한 것이다. 거짓말 할 수 없는 것이 시다. 시는 어떠한 픽션(fiction)과도 다른 것이다. 소설이 가상과 허구의 세계를 표현하는 문학 형식이라고 한다면 시는 특유하고도 독자(獨自)적인 혼의 부름소리다.

시란 결국 개인적인 경험감정에서 쓰여진다.

거짓말로 꾸며 낼 수 없는 것이다.

발레리는 '개작할 수 없는 것' '번역할 수 없는 것'이 시라고 까지 하였다. 이는 시가 언어예술이라는 말의 반증이기도 하다. 고로 진실한 사람만이 진실한 시를 쓸 수 있다는 말이 실감난다.

自然主義 思想 에 대하여

백 중 숙

원래 自然(Nature)이라는 말은 그리스의 피시스(Physis)에서 유래한 것인데 생성을 뜻한다. 哲學에서 자연은 스스로의 원인으로 스스로를 낳고 스스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겨나서 자라고 나약해져서 소멸 하는 것이 자연이고 그 안에 生命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Aristotels, 고대 회랍의 철학자)는 “자연이란 그 안에 운동의 원리를 가진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와같은 자연주의는 동서양의 사상적 차이가 있다.

동양의 문화는 그 철학적인 사상의 바탕이 동양 고유의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동양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동양의 사상은 유교적인 데에 核心을 두고 외부적인 影響을 가미했다.

‘또 공자의 유교회화사상은 後素精神을 중요시 한데 비해 老莊子의 회화사상은 無爲自然論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그 근본적 의미는 같은 뜻을 지닌다. 後素와 無爲의 자연주의 사상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양 회화 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도교인 老莊思想이며, 산수화 속에 노·장자의 자연주의 사상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노·장사상에 의하면 천지만물의 현상이나 인간까지도 모두가 자연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자연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노·장자의 회화사상은 자연 속에 숨어있는 무위자연성을 중요시한다. 또 노·장자의 예술론은 미(美), 리(理), 전(全), 순(純)을 내세우고 있다. 道는 美이며 천리는 자연조화의 美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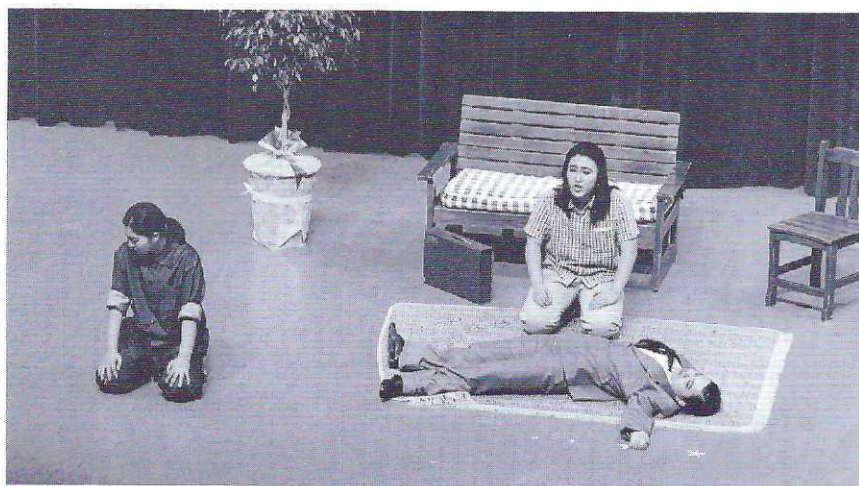
장자의 예술론중 자유해방에서 장자는 至樂과 天樂이 인간의 정신적 해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유해방은 장자의 정신안정설에 의해 나타난 것인데 정신이 안정을 얻고 자유해방을 추구하면 순수한 미의 세계를 이룬다는 뜻이다. 곧 인간이 천진스러운 어린아이 같은 狀態를 喪失할 때 불행해지는 것처럼 사회가 인간을 의식 도덕적으로 제약하고 사회적 의무로 속박될 때 인간은 불행해지며 사회는 타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장자는 인간의 성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강조하면서 放任해 두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예술이란 어떤 것에 제약 받지 말아야 순수한 예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일 것이다. ‘장자는 인간이 자연을 순하게 추종하는 어린이가 되고 어딘지 알지 못하면서 움직이며 까닭도 모르고 정하며,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되 자신을 존재의 자연적 상태에 적응시키는 곳에서 이것을 납득하는 것이 행복한 요소요, 이상적 생활이라 하였다.

곧 인간의 自由解放이다. 이즈음 사회는 더욱 노·장자의 생각을 다듬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과학의 발달과 물질문명 위주의 이기주의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즈음이야말로 노·장자의 무위자연론, 자연사상은 필요한 때라고 본다. 이 물질만능이나 과학의 발달은 우리에게 편안함도 주지만, 노·장자의 철학과 같이 ‘세상만물의 진행이 순환법칙에 의하여 『物極必反, 禍福相倚』한다고 하였다. 이는 사물이 한 방향으로 성행하면 다른 한방면으로는 상반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행복이 극치에 이르면 다른 방향으로 화가오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과학의 발달로 인한 自然毀損, 人間尊重의 상실 등은 노·장자의 사상과 조금도 틀림이 없다. 모든 기움은 본래 唯心에 그 근본을 둔다.

장자는 仁은 智를 초월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역시 화가란 회화의 방법과 회화사상을 초월하여 참다운 畫家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이 무어라 하더라도 철저한 자기 만의 사상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작업을 계속하면 예술의 요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무대의 형태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형태로 극장의 이미지는 물론 질적, 양적 공연을 시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프로씨니엄 무대는 기능적으로 쓰기에는 철저히 제한되어 있다. 관객과의 거리 때문에 앞서 밝혔듯이 더 이상의 현장성은 살아있지 못하다. 나름대로의 대안으로 개방무대와 돌출무대를 합한 공간을 제시해본다. 먼저 먼막(Main Curtain)의 중요성이다. 현재 속초문화회관의 먼막은 Brail Curtain이라하여 주름막으로 만들어진 극적인 부분이 없는 일정속도 일정형태로 닫고 열게끔 되어 있는데 아예 없애 버리는 형태를 제시하고 싶고 단절된 무대를 객석과 같은 높이로 돌출 되어 무대형태로 바꾸기를 원한다. 그럼으로써 관객은 보다 무대와 가까워지고 행위자들은 한층 더 자신의 Acting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 예 1, 2)



무대 중앙에는 회전무대는 아니라도 함정(Trap)정도는 만들어 무대바닥을 통해 등·퇴장이 용이한 특수효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드라마센터)

셋째, 객석의 형태다. 연극제작의 관점에서 볼 때, 객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관객 설비다. 객석은 시청각의 최적조건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필요들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뒷전에 밀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①극장을 회의장, 체육관, 모임회 정도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수효의 이동좌석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 ②최대의 대표수입을 끌어 들일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의 수용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 등에 의해서 말이다. 아주 작은 객석 공간이라면 발코니 등을 만들고 객석을 비탈져 올라가게 할수도 있을 것이고 큰 공간이라면 모든 관객이 실제로 모든 연기공간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시각선도 필요할 것이다. 속초문화회관은 관객의 일부가 공연구역의 큰부분을 볼 수 없게 되어있는 조악한 시각선을 갖고 있다.

넷째, 그외의 극장 구조물 등에 있어서도 개선점은 많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마지막으로 극장을 짓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무대는 현장 예술인들이 사용하므로 현장 예술인들은 분장실의 등 갯수부터 무대의 편리함과 불편함 등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예산과 극장이 차지하는 평수가 확정되면 예술인들과 무대 전문가들이 모여 심포지움도 열고 여러번의 수정작업과 확인을 거쳐 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각의 극장요소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극장의 형태와 기능에 맞게 결정지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속초에 지어지는 소극장이든 대극장이든 모든 문화공간은 현장에서 일하는 예술인들의 의견과 견해가 철저히 지켜지길 기대해 본다.

음악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I. 들어가는 글



심 언 흙
음악협회 속초지부장

고대 그리스인들은 음악을 물리나 수학과 같은 과학의 한 분야로 삶에 교훈을 주는 철학의 한 분야로 생각하였으며, 인간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즐거움을 주는 예술의 한 분야로 이해하였다. 이와 같이 이들은 음악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요즘의 음악은 교훈을 주는 철학은 못되더라도 음악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의 정서가 병들어 가고 피해를 입고있는 현실이다.

산업사회에서 매스미디어 시대에 접어든 21세기는 정보의 홍수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음악문화는 양질과 저질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청소년들 앞에 무방비 하게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저질의 문화를 상업화하여 청소년을 상대로 하여 이익을 쫓는 사회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제는 어떤 음악이 어떻게 우리청소년들에게 악 영향을 주는지를 점검하고, 그로 인해 청소년들의 피해를 줄이는 대안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음악과 인간과의 내면적인 관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세속 음악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과 고전음악의 역할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으며, 저질의 음악을 표현하는 것은 일반 대중음악을 매도하려는 뜻이 아니고 누구나가 들어도 저속함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을 지칭한 것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급변해 가는 세속 음악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법을 찾아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음악이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

1) 음악은 인간의 내면적 즐거움의 표출이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주위에서 일어나면 자신도 모르게 흥이 나서 흥얼흥얼하여 자신의 즐거운 내면적 세계를 겉으로 표출하게 되고 좀더 흥이 나면 그 흥얼대는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인간의 본능인 것이다.

하물며 우리사람들과 제일 가까이 생활하는 견공들도 주인을 만나면, 반가워하는 태도를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음의 높낮이를 소리내어 몸을 비틀면서 반가움을 표시하며, 그 외의 동물들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보여, 역시 음악은 살아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즐거움을 들어내는 나타나는 공통된 분모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2) 음악은 힘을 만들어 내는 좋은 재료이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히브리인들은 맨 앞에 법궤를 들고 나팔수를 앞세워 성을 7일째 행진을 하여 돌고 음악과 합성을 지르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성서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을 보고 음악의 위대함을 느끼게 한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어 영웅의 칭호를 받았지만 그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승리한 러시아에서는 승리의 기쁨을 차이코프스키에 의해 작곡된 곡이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용기와 승리감, 국민들의 단결심을 안겨주었으며 프랑스인들 에게는 수치의 곡이 되어 지금도 금기시 하는가 하

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우 친근한 곡 '1812년'이다.

지금도 국가의 주요 행사시에는 도로 행진을 하는데 악대가 맨 앞에서 사기와 흥을 돋우며 퍼레이드 하는 모습을 종종 보며 음악을 많은 군중들에게 힘과 흥을 주는 힘이 있는 것을 느끼게 한다. 역시 음악은 인간들에게 핵과 같은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음악은 국가 정치의 감초이다

우리나라의 군사정권시절 경제적 어려움이 심했던 때에 국가에서 새마을 운동을 제창하였다. 정부와 국민모두가 함께 맘을 흘려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은 대단한 일이었으며 이 시기에 새벽마다 우리의 단잠을 깨우는 음악이 바로 새마을 노래와 국민가요였다. 직장마다 마을마다 울려 퍼지는 국민가요는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국가가 어수선하고 국민들이 불안정할 때 단골 메뉴로 쓰이는 정책이 국가 위기를 빙자한 반공, 외국팀과의 친선 축구경기, 세계적인 음악가 초청음악회가 방탄 막이 되어 정치의 도구로 쓰여졌던것도 부인 못할 일들이다.

요즈음은 선거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맛보게 한다. 많은 후보들이 한창 인기 있고 유행하는 대중가요나 국민가요를 패러디 하여 언론이나 득표의 효과를 보고 있고, 또한 국가가 어수선하고 국민들이 불안정할 때 단골 메뉴로 쓰이는 정책이 국가 위기를 빙자한 반공, 외국팀과의 친선 축구경기, 세계적인 음악가 초청음악회가 방탄 막이가 되어 정치의 도구로 쓰여졌던것도 부인 못할 일들이다. 역시 예나 지금이나 음악은 정치에 빼놓을 수 없는 감초임을 실감한다.

4)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매료시킨다

국내외적이나 사회단체에서의 빅 이벤트중 오프닝 세레모니에서 보면 음악과 인간의 마음이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어우러져, 분위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누구나 한번쯤 직접 경험했거나, TV를 통해 경험한 사실이 있을 것이다. 충혼 행사나 장례식장에서 그리그의 페르퀀트에 나오는 조곡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했고, 결혼예식장에서 흘러나오는 바그너의 결혼행진곡은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켜 축하의 마음을 갖게 하는것도 많이 경험하는 일이다.

동대문상가, 남대문상가, 이대앞등의 상가를 가보면 빠른 템포의 음악이 구매자들의 마음을 바쁘게 하고 빠른 결정을 내리게 하여 매상에 한몫을 하는 반면, 호텔이나 조용하면서도 아늑한 카페에서는 실내악 연주나 잔잔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고전음악을 제공하여, 진지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적합한 장소로 사업가나 정치인 또는 결혼 전의 양가의 맞선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들은 어떤 행사에서든지 음악이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두배 이상의 효과를 올리는 것은 사실일수 밖에 없어 음악의 능력과 필요성을 실감한다.

위의 내용은 음악에 대한 빙산의 일각으로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경험하게되는 내용들을 나열하였고, 장르별로 분석해보면 음악에 대한 영향력은 무한함을 느끼게 한다

2. 급변하는 세속음악의 추이

1) 우리나라 세속음악의 배경 및 흐름

우리나라의 대중가요 변천사를 간단하게 열거하면 일제 치하의 설움과恨을 애절하게 표현한 '눈물젖은 두만강' '타향살이'등은 이 노래를 통해 일제 치하의 암울한 현실을 살던 대중들에게 동병상련 적인 카타르시스를 제공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70년대의 '하숙생' '동백아가씨'와 같은 트로트 음악, 80년

대의 '아침이슬' '하얀 손수건'등의 포크음악이 우리들의 감정을 사로잡았으며 국민들의 청서에 크게 기었다. 그러나 20세기를 전후하여 '난 알아요'등의 랩 음악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청소년 중심음악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점점 더욱 '랩'화 되어가고 있다.

세대가 다르고 정서가 다른 만큼 그 노래에 공감 하긴 어렵지만 6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생명력을 갖고 호소력 있는 세속음악이 요즘에 와서는 최고의 정상에서 스타덤에 오른 가수들도 평균 수명이 2년 반이라는 보도를 대하면서너무도 잠시 지나가는 시대의 세속음악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다.

2) 이 시대 일부 세속음악이 청소년 정서에 끼치는 문제점

음악이란 함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목소리·악기 따위의 소리를 통하여 나타내는 예술이라고 국어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좀더 풀이를 한다면 양질의 시에다 양질의 멜로디를 주 선율로 하여 하모니, 리듬이 잘 접목시켜 사람들의 귀를 통해 회,노,애,락을 느끼게 하는 양질의 소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의 일부 세속음악은 양질의 음악적인 면이나 문학적인 면을 찾아보기 힘들고 지속적인 리듬과 멜로디, 불협화음, 저속한 가사로 만들어진 음악을 현란한 춤과 사이키 조명으로 포장하여 저속함을 은폐시키고, 청소년들의 감성을 최대한 자극시키는 것,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추려고 부패하고 세속화된 다수의 음악들은 실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어떤 가수는 자신이 춤은 잘 추지만 노래는 잘 못 부르는데도 자신을 좋아하는 팬들이 많은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고백하는 방송을 보고 또, '시발놈아'라는 인기곡을 들으면서 참으로 요즘의 세속음악의 아이러니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들은 랩과 춤을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단순한 대용 물로서만 여기는 문제점, 오로지 혈떡 거리는 흥분과 걱정, 그리고 한껏 고조된 기분을 만끽하려는 욕구, 양질의 음악을 기피하고 현대의 랩이나 이상스런 음악에 심취되어 오직 그러한 음악만을 선호하는 일부 현상이 매우 심각한 일이다.

3)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점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음악 교과서에 실린 노래를 보면 단기간이나 1회성이 아닌 영원 불변인 불후의 명곡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지만, 학생들은 교과서의 음악에는 흥미가 없고 음악을 전공한 음악교사들이 부르기 어렵게 느끼는 난해하면서도 비정상적인 리듬과 랩을 능숙하게 해 나가고 좋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라고 느낀다.

교육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알맞게 편집된 학생의 음악 교과서는 학생자들이 흥미를 잃어가고, 문제성 있는 음악만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정서문제는 실로 심각하다고 생각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많은 청소년들은 방종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3. 고전음악의 보급을 위하여

1) 심각성을 인식하여 매스컴의 프로그램 개편

우리나라의 TV방송에서 일본의 쇼프로를 그대로 패러디 하여 방영한다는 소식을 가끔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모든 프로에 대한 대 개혁을 해야 할 때라고 보며 다음과 같은 문제는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한다.

- ①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의 개발.
- ②10대만을 겨냥한 쇼프로그램에서 5-60대도 함께 즐기는 쇼 음악프로그램의 전환.
- ③교육적에서 보는 쇼 프로의 검증 등이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한다.

2) 고전음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즘의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가 가수의 흥내를 내어 춤을 추며 노래부르는 것을 보고 대견해하고 좋아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게 된다. 가요는 어른들에게, 찬송가는 교인들에게, 찬불가는 불자들에게, 동요는 어린이들에게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이 다름)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어른들 또한 마스크를 통해 자신들의 음악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잊고 있다. 먼저 어른들의 의식이 바뀌어지고 내 자녀들이 좋은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하겠다.

3) 음악회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어느 지역이던지 연주장에 관객이 부족한 것은 공통된 현상이다. 음악교사들은 10년, 20년후를 내다보고 학생들을 음악회에 참석 시키기 위해 반 강제성을 띤, 성적에 참고를 하는 등 억지방법이라도 라이브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의 학력에 관한 애착과 학교운영자의 비협조로 생각보다 많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몸을 보호하는 한약을 자녀의 건강을 위해 먹이려면 쓴맛 때문에 약을 앓먹으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싫다고 하지만 억지로라도 보약을 먹이고 나면 그 약의 효험이 분명 나타나 건강을 찾게 되듯, 음악도 마찬가지로 음악회장에 가기 싫고 세속음악보다 싫지만, 라이브 콘서트를 자주 접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정서적인 안정과 평안을 갖게 되고, 자신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자신과 학부모 음악교사와 학교운영자 모두가 협조하여 힘을 합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III 결론 및 제언

일반 청소년들이 즐겨 부르는 랩이나 댄스는 젊은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신세대라는 시대용어 속에 우리 가까이 들어와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현란한 조명과 리듬, 자극적인 춤의 지배를 받아 결국 예민한 감수성을 잘 리드하지 못하여 실패하는 청소년들의 경우를 가끔 접하게 된다. 민주주의에서의 음악은 인간의 삶을 정서적으로 윤택하게 하는 한편, 사회주의에서는 음악을 통해 주체사상에 이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속음악이 음악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나 자주 대하는 흥미위주의 랩 음악이 사람들의 정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임을 우리사회가 모두 느껴야 한다.

현란한 리듬과 도약적이고 동적인 멜로디와, 흐느끼는 끈적한 멜로디, 불협화음 등의 일부 저속한 음악이 때 묻지 않은 청렴한 청소년들에게 결코 용납하기 힘든 일이다.

모든 음악은 인간의 정서 중심으로 한 상향적 음악이어야 하며, 그 외의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음악적 스타일은 어떤 이유로라도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올바른 세속 음악의 가치관을 온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때라고 보며, 우리 민족 정서를 숭고한 것으로 전환시키는데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대중음악과 친해지기

최 경 복

(한국연예협회 속초지부 사무국장)

대중음악이란 것은 무엇일까 하는 단정을 내리기엔 너무 힘든 추상적인 단어다. 쉽게 표현하자면 대중적인 정서를 지닌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성을 지닌 음악과 대중음악은 다르다.

현대 사회를 살면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문화가 '팝'이라는 것이다. 우리말로는 '대중적 문화'라고 번역되는 이 용어는 오래전부터 음악문화에서 그 저변을 굳건히 다져왔다. 시대적으로는 산업혁명이 만들어졌다. 서구의 음악문화에서 팝적인 취향이나 발상은 예나 지금이나 지속적인 인기를 누려왔다. 예를 들어 보자.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들, 피아줄라의 탱고 등 이런 음악스타일과 장르들은 모두가 대중적인 취향에서 발생한 모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

퍼플러 뮤직은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해서는 안되고 음악이론에 대한 지식없이도 감상과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들은 현대 사회 대부분의 퍼플러 뮤직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며 누구나 가늠해 볼만한 성격들인 것이다. '대중음악'이란 특정 장르나 스타일로 그 정의가 좁혀질 수 있다. 그래서 퍼플러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은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다. 과거로 내려가면 우리의 판소리나 기타 여러 가지의 전통적인 음악이 대중음악이였으며, 일제시대와 전쟁과 경제 발전 모든 배경이 음악을 바꾸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왔다. 그러면 음악을 이해하고 쉽게 느끼는 방법이란 없는가? 음악을 배운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의 악기를 익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음악교육=악기 훈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노래는 배운다고 하지 않고 불러본다고 한다.



시나 단편소설 또는 수필 등을 쓰거나 한 번 써볼까하는 생각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안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고, 자신의 메모장에 심심풀이로 이것저것 그려본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리듬에 맞춰 한국 춤인지 서양댄스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몸짓을 해본 순간들도 있고, 또 요즘 들어서는 비디오를 들고 생활 속의 여러 순간들을 담아보기도 한다. 그리고 보면 문학이나 미술, 무용, 영상 등에서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기회에 자기식의 표현을 하면서 산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유독 음악은 정해진 것만 연주하고 듣는 것을 자신이 하는 음악생활의 전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음악을 배우고 창작한다는 것은 정해진 것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 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불러 보고 두드려 보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무엇인가 나름대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일정한 틀에 메인 음악의 대중음악은 현재 사람들이 쉽게 익히고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지 창작음악이나 예술음악과 같이 어떠한 한 부류의 음악에 매여서 일부 매니아 만을 위한 음악으로 변형되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 앞으로의 사회가에 가장 필요한 인간형은 예술적 감각과 상상력이 풍부한 창조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언어든, 형상이든, 음향이든 간에 남의 것을 어중간하게 모방하는 것보다 서툴더라도 자신감있게 표현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때이다. 어설피게 보이더라도 용기있게 나서는 것에 박수보내고, 어렵더라도 계산하지 않고 일단 해보는 소박하지만 힘있는 삶의 태도는 결국 예술에 있어서도 창조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자연스럽게 반주하기 어렵게 만들고 환타지만을 강조하는 화려한 테크닉의 연주보다도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해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줄 아는 것, 익숙해서 편안하기는 하지만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하는 주류의 대중음악관행에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남이 모르는 음악가와 작품을 자신의 방안에 쌓아 놓는 것만 자랑으로 생각하는 편집증적인 매니아들에게 현혹되기 보다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문화현상이나 작품을 자기나름의 기준을 갖고 선택할 수 있어야 대중음악과 친해지고 더 발전 하는 대중음악을 만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은 실제 위주의 댄스 음악 일변도의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중음악이 어떤 한 종류의 음악으로 정착된다면 그것은 이미 대중음악이라는 범주가 아니라 대중음악의 존재감마저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하나만이 아니라 전부를 위한 음악이 되기까지는 성숙한 음악 사랑과 올바른 눈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생활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진 디자인에 대하여

『풍경사진 어떻게 찍을 것인가』 강동문 著, 中에서 발췌 수록

속초사진협회

원래 디자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장면의 요소들을 프레임 안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을 선택한 순간부터 셔터를 누르는 순간까지 직접 내리게 되는 모든 기술적, 예술적 결정은 이러한 햇빛에 나타나게 된다.

훌륭한 디자인의 목표는 간단하다. 특별한 장면, 즉 극적 효과, 아름다움, 고요함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보는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사진가 E. 하아스(erast Haas)는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진 속의 대상의 배치는 그 장면에 대한 사진가의 생각 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전달하는 이미지를 창조해 내도록 해야 한다.

사진가들마다 서로 느끼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진을 디자인한다. 많은 사진가들은 화면의 요소들을 최소화하여 거의 추상적 배열에 의해 디자인에서의 단순성을 추구한다.

직접 눈으로 본 것을 형상화하려면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을 이해하도록 연구하여야 한다. 균형과 불균형의 개념, 그리고 종속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진가들에게 있어서 디자인은 직관과 경험의 과정이다. 어떤 사진가는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정말로 많은 사진가들에게 있어서 디자인 행위는 천부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들 사진가들은 장면에 생동감을 만들어내기 위해 올바른 시각적 균형 혹은 리듬을 창조하거나 가장 매혹적인 도

형적, 기하학적 구성을 찾아내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과연 이들의 재능은 선천적인 것일까? 대개의 경우 반드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들의 능력은 유전적이라거나 선천적인 재능이라기보다는 많은 경험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흥미 있는 디자인을 꾸준히 창조해내는 사진가는 이미 수천 장, 수만 장의 사진을 찍었고,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알기 위해 디자인 문제를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다루어왔다. 사진에 있어서의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이러하다 해결을 기다리는 시각적 문제이다. 디자인이란 생활에 따라 각기 다른 문제이며, 각자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P. 스트랜드(Paul Strand)는 디자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삶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것과 관련해서 자신만의 구성능력과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방법 따위는 없다는 것이다. 각 개인에게는 자신의 방법만 있을 뿐이다. 결국 우리는 사진 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혼자의 힘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1. 디자인의 기본요소

디자인의 요소란 무엇인가? 창고와 들판, 협곡과 강, 지평선과 가로수 길인가?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도형적인 요소들, 즉 선, 형태, 모양 및 텍스처이다. 이것들은 모든 장면의 구성요소이며,



시각적 상부구조를 이루는 골격이다.

여러 가지 대상들 속에서 여러 시각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배우는 특이한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개의 경우는 눈은 무의식적으로 장면을 훑어보다가 눈에 두드러지게 띄는 특징을 주시하고 부수적인 요소들은 무시한다. 눈은 헛간을 보지만 그 벽면의 표면을 갈라놓은 측면광은 무시해 버린다. 사람의 눈은 소의 모습을 보긴 하지만 푸른 언덕을 배경으로 서 있는 소의 도형적인 모양은 지나쳐 버린다. 대개 사람의 눈은 사물을 유심히 보거나 관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통 장면속에서의 선, 형태, 모양 및 텍스처는 시각적인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진을 찍으려고 구상을 할 때 사물을 평범하게 본다면 좋은 사진을 바랄수는 없다. 사진을 찍으려 할 때 대상을 이루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평가해보고 관찰해본다. 가령 나무를 찍으려면 나무의 전체적 외형만 대충 보지 말고 나무의 모양, 부풀어 오른 나무줄기, 거친 나무껍질, 그리고 나무뿌리의 굽은 모양을 면밀히 관찰해 본다. 이러한 특징들을 강조한다든가 감추어 잘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든가 무시해버린다든가 하는 것은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일단 이러한 특징들을 먼저 관찰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풍경은 드넓은 평원의 지평선 위에 떠 있는 몽계구름, 시냇물의 구불구불한 선, 추수가 끝난 후의 줄지어 서 있는 벼짚단, 흰 눈을 머리에 이고 서 있는 언덕 위의 소나 나무 등 다양한 디자인적 요소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하나 하나의 요소들이 화면 구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검토해보고 얼마나 중요한가의 비중을 평가해본다.

그 장면의 효과적인 구성을 위해 어떤 요소들을 포함시키고 어떤 요소들을 제외시킬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고 포함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돋보이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점과 카메라 앵글을 여러모로 변화시키도록 한다. 한 장소에서만 머뭇거리지 말고 부지런히 자리를 옮기면서 자세히 관찰하고 구상해야 한다. 사진가가 이루어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시각

적 관련성은 풍경에 대한 해석의 기본이며 멋진 디자인을 이끌어내는 열쇠이다.

2. 패턴

매우 멋있고 흥미로운 풍경 중에는 특이한 패턴이 있는 것들이 꽤 많다.

사람의 눈은 선의 반복, 모양의 반복, 형태의 반복, 색의 반복에 특히 민감하다.

패턴에 관한 관심은 일상적으로 입는 옷, 벽지나 포장지, 실내장식, 심지어는 종이 냅킨에도 잘 나타나 있다.

풍경의 디자인에서는 커다란 장면 속에 질서감과 조화감을 주는 패턴을 사용하고 무늬가 구조의 중심 초점이 되게 한다. 방금 파헤친 옥수수밭은 그림 같은 농장 풍경에 통일감과 율동감을 주며, 따로 떨어져 있게 되면 추상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낸다.

내용과 디자인 면에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많다. 고궁의 단청으로부터 거미줄이나 클러버 잎사귀, 아파트나 고층 건물의 창문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은 무늬들로 가득 차 있다. 더러는 성당 창문의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이 다소 영구적인 것도 있지만 여름날의 인도(人道)에 비치는 그림자나 연못에 번져나가는 잔물결처럼 잠시 생겨났다가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것들도 있다.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는 비결은 시점과 자각이다. 패턴에 대해 민감한 능력을 키울수록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았던 장면에서 패턴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눈에 익숙한 주제를 색다르게 눈에 익숙하지 않은 시점에서 바라보면 지금까지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 같은 장면에서 매우 흥미 있는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가령 화려한 무늬의 비치 파라솔과 비치 타올은 높은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뚜렷하게 보이지만, 해변가로 내려와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거나 사라져 버린다.

패턴을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것은 무늬의 배치이다. 오로지 무늬만이 주제가 될 경우에는 배치를 조밀하게 하는 편이 짜임새가 좋다. 산만한 느낌을 없애고 프레임 구석구석까지 무늬를 확대시키면 무늬는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넓은 구도에서 무늬가 하나뿐일 때 - 가령 항구의 풍경에서 전경(前景)에 줄지어 떠 있는 색색가지의 돛단배들 - 에는 이 무늬가 구도의 전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패턴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하도록 한다.

묘하게도 패턴에 관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과도한 반복에 있다. 너무 강렬한 무늬는 흥미롭다기보다는 지루한 느낌을 주기 쉬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새로운 요소 - 빨간 튜립 화단에 한 줄의 노란 튜립 - 를 첨가하면 훨씬 단조로움이 줄어들고 생기가 살아난다. 패턴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눈을 놀라게 할 만한 다양성을 부여하도록 탐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균형과 불균형

음악적 구성에 있어서 즐거운 후렴 부분처럼 사진에의 균형감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준다. 사람의 귀가 균형 잡힌 음악을 즐기는 것처럼 눈도 시각적인 균형을 즐긴다.

우리는 대칭, 즉 프레임 속에 공간과 대상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을 이용하여 거의 완전한 디자인 균형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칭적인 디자인과 관련된 문제점은 디자인이 7월의 열기처럼 정적이어서 움직임이나 예감과 유사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떤 주제들은 자연스럽게 대칭적 배열을 구성하고 있는데, 특히 본래부터 대칭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주제가 그러하다. 가령 연못의 가장자리와 같이 프레임 중앙에 분할선을 반듯하게 놓을 때 수면의 반사는 놀라운 정도로 거울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된다. 그러나 패턴의 경우와 같이 대칭으로 부터 약간의 시각적 산만함 - 물위에 비친 백조의 헤엄치는 모습 - 을 첨가하게 되면 장면은 한결 생동감을 갖게 된다.

균형감을 창조하는 더 유연하면서도 역동적인 방법은 시각적 무게에 따라 사물을 배치하는 것이다. 시각적 무게란 프레임 속의 색의 밝기, 색상, 부피 혹은 위치 등에 따라 대상이 나타내는 '가벼움' 또는 '무거움' 을 말한다. 시각적

무게는 다소 주관적이다. 그러나 대개 밝은 계조, 밝은 색조 및 열린 공간은 가벼운 느낌을 준다. 어두워 보이는 사물, 단단한 덩어리, 그리고 무채색은 무거워 보인다.

그러므로 디자인의 균형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어느 방향에서나 무게가 너무 많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비율로 배치하되 서로 반대되는 무게의 요소들, 즉 어둠과 밝음, 다채색과 무채색, 단단한 덩어리와 열린 공간을 대비시키는 일이다. 가령 해질 무렵 도시의 스카이라인의 실루엣은 하늘의 넓은 공간으로 인해 상당히 상쇄된다. 실루엣으로 처리된 빌딩은 무거워 보이고 하늘은 밝기 때문에 가벼워 보인다. 그러므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안에서의 화면의 배분은 하늘 부분을 보다 많이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균형은 화면의 구도에 있어서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특성이지만 아무리 엄격한 규칙이라도 '반드시' 또는 '절대적' 이라고 강요될 수는 없다. 대로는 디자인의 균형을 과감하게 파괴하는 쪽을 택할 수도 있다. 오히려 불균형이 긴장감과 불안감을 자아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가령 프레임 한쪽에 대비를 이루는 균형 물체도 없이 다른 한쪽에 커다란 바위 형상을 배치시키면 뚜렷한 긴장감과 불안감이 생겨난다.

불균형은 강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이러한 호기심은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불균형 구도를 자세히 검토하게 만든다. 호기심이란 그 원인을 찾아낸다고 해도 결코 만족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사진가들에게 호기심은 통속적인 대상에도 관심을 끌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다. 호기심은 관심의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도시의 불균형 구도는 인간과 자연의 불균형을 나타낼 수 있다.

4. 강조

선택하여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 사진은 결국 아무 것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풍경은 보는 사람이 관심을 사로잡는 하나의 강조점, 즉 넓은 원두막, 다리, 깃발, 사람 등이 있을 때 더 강렬하게 흥미를 끌게 된다.

인물사진처럼 풍경사진과 다른 유형의 사진에는 주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강조가 용이한 편이다. 그런데 풍경사진의 경우는 대개 주요 요소가 분명치 않을 경우가 많다. 사진가는 주위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접 선택한 관심사를 효과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의 눈을 특별한 곳에 돌리도록 하기 위해 사용했던 고전적 기법 중에는 도입선(Lead-in line)이 있다. 사람의 눈은 선에 대해 본능적인 호기심을 갖고 있어서 선을 열심히 탐구한다. 사진을 보는 사람의 관심이 주가 되는 대상으로 끌어들여려면 도로 또는 자연적으로 생긴 선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지점에 두도록 한다.

도입선은 프레임 안에서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까지 이어지고 선과 대상과의 도상적(圖上的)인 상고 관련성 외 양간으로 이어지는 울타리 또는 파도를 타는 사람들에게로 이어지는 파도의 꼭대기 - 이 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단 도입선의 잠재성을 깨닫게 되면 어디에서나 길게 줄지어 서 있는 주차장의 미터기들, 구불거리는 오솔길, 방금 벼를 베어낸 논바닥 등 도입선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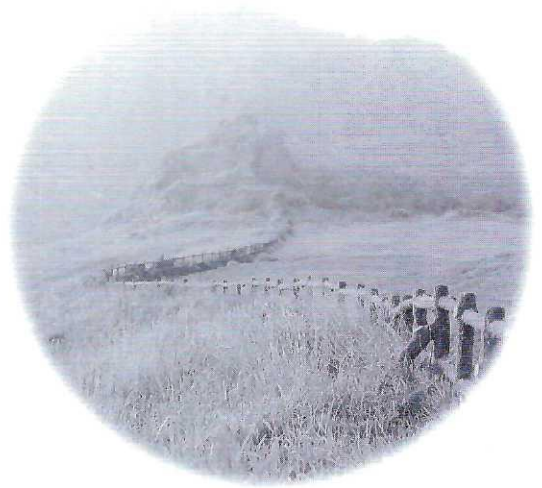
계조 혹은 색상의 대조는 강조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가을옷으로 갈아입은 단풍나무 언덕에서 제일 앞에 있는 나무는 마치 불이 난 집처럼 두드러져 보여 시각적인 긴장감을 자아낸다.

강조를 할 때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주제가 프레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이다.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면 주제를 파인더 중앙에 정직하게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논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어떤 대상 도는 의도를 가진 것들에게는 중앙 부분은 정제된 것이 되고, 또 다른 것들에게는 중앙부분이 안정되고 조용하다.

역동적인 주제의 위치를 결정하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1/3 규칙 - 화가들이 오랫동안 탐구한 기법 - 으로 이 방법은 마음속으로 프레임을 3등분하여 수평, 수직을 그어 네 개의 중요한 교차점을 만든다. 이 중에서 어느 한 교차점에 놓이거나 가까이 있는 요소는 어느 것이든지 상당히 중요하고 강조점이 강화된다. 대각선으로 반대가 되는 교차점에 놓인 종속적 요소는 통일감과 균형감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장면을 규칙대로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장면들은 그 장면만의 독특한 느낌과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뷰 파인더를 통해 보면서 이 장면에 가장 적합하고 조화가 잘 된다고 느껴지는 것을 찾아낼 때까지 계속하여 구도를 이모저모로 연구해보도록 한다. [속초사진협회 편집자 주]



제2회 훈춘가요제를 마치며...

김 동 만

(한국연예협회 속초지부장)

여름이 시작되는 유월말 우리들은 제2회 훈춘가요제 행사를 위하여 중국으로 떠나면 여행길에 올랐다. 연예협회 회원 그리고, 장규호 속초예총회장, 김철수 속초시문화공보실장, MBC취재진, 공식 비공식 인원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된 단원들이다.속초 여객터미널에서 동춘호에 오른 우리들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선상 공연을 시작했다. 우리와 관광객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 모두 한마음으로 즐거운 여행을 보내는 시간.거대한 동춘호는 북쪽으로 힘찬 항해를 계속했다.

24시간 항해 끝에 러시아 자루비노 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동춘호의 고장으로 장시간 항해로 인해 모두 피로에 지쳐있었다.

낮선 중국땅에서 우리를 기다리는건 행사를 보기위해 모여든 우리 조선족사람들, 공연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같이 어울리는 동포들을 그리며 피로에 지쳐있는 몸이었지만 얼굴에 미소를 띠며 현지에 도착 할 수 있었다.

자루비노에 도착한 우리들은 버스를 타고 훈춘시로 출발할 수 있었다.

창밖으로 자전거를 타고가는 사람들과 걸어가는 사람들 모두 친숙한 느낌이었다. 행사로 인하여 훈춘을 자주 왕래한 까닭인 것 같다. 그렇게 도착해 하룻밤을 지낸 우리는 다음날 오후부터 총연습을 시작할 수 있었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편곡한 반주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우리 회원들은 그 부분으로 인하여 저녁까지 고생을 많이 했다.



(제 2 회 훈춘시 가요제 장면 : 훈춘시 영국원)

그 다음날도 연습은 계속되었다.

오전 오후까지는 연습으로 보내고 해가 저문 초저녁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다. 공연장에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버스를 동원해 농촌에서 손에 빨강, 노랑, 파랑 다양한 색의 깃발을 들고 응원하러 오는 모습은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많은 관중속에는 연변 조선족사람들만이 아니다. 중국인들도 상당수가 입장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도 우리 대중가요를 즐겨듣는다. 택시를 타보면 운전기사는 분명 중국인인데 차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우리 대중가요이었다. 이렇듯 한국 대중가요가 거대한 대륙 중국이라는 나라까지 퍼져있다.

노래하며 춤추며 즐겁게 보낸 3시간의 공연은 우리들과 출연진들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 합창으로 눈물 어린 감동과 함께 내년을 기약하며 끝이 났다.

우리 조선족 동포들은 그 『아리랑』을 기억할 것이다. 『아리랑』에 우리와의 좋은 추억을 실어 가슴 깊이 간직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올 땐 동춘호의 고장으로 5일간 더 훈춘에 머물러야 했다.

머물러 있는 동안 훈춘시 초등학교에서 우릴 위한 공연을 했다. 어린이들의 노래, 춤, 그리고 연주 실력은 대단한 수준이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들의 어린시절이 생각났다. 우리네 어린시절 초등학교 모습 그대로였다. 한글로 쓴 '몸도 튼튼 · 마음도 튼튼' 우리네 어린시절 표어들이 아직까지 그대로였다. 기억속에 희미해진 옛 추억들이 다시 살아나서 흐뭇했다.

교민 동포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훈춘 조선족 동포들과 두만강 유원지로 야유회를 갔었다. 우릴 위해 배운 친절과 정성에 너무나 감사했다. 그리고 동포들과 함께 한 배구 경기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속초로 돌아오는 동춘호 선상에서 거세게 물결치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이번 공연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으며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보며 무엇을 얻었는지를.

거대한 중국이라는 나라속에서 살아가는 연변 조선족 동포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으며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서 지금은 희미해진 우리네 추억들과 순수함의 선물을 가득 안고 왔다.

끝으로 이 행사를 도와주신 속초 · 훈춘 시장님과 시 관계자 여러분. 강원도 예총지회장님, 그리고 훈춘 가요제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요제 행사를 마치고 단원들과 함께)



김 광 수

함흥사범(44), 평양미대회화과(50)졸
개인전 초대전 7회 (서울 덕수, 롯데, 잠실, 속초, 아남프라자 등)
일본아세아 현대미전 초대출품(한국대표단참가 '83)
한국현대미술 대상전 동상(79) 특별상수상(81)
한국현대미술 대상전 동상(79) 특별상 수상(81)
한국미협전, 함남도전, 원우회전, 신기회전 출품('80~2000)
한국미협, 한국예총 속초지부장 역임
속초시 문화상 수상('92), 통일부장관표창(2000)
현, 한국미협, 신기회 자문위원, 강원미술대전 초대작가

「금강산 만물상 가는 길목에서」

내가 금강산에 다녀온 것이 이번까지 꼭 다섯 번 켜다. 소학교 시절에 한번, 사범학교 재학시에 한번, 그리고 평양미대 재학시에 졸업작품을 제작하고자 일행 16명과 함께 20일 가량 온정리에서 머물렀던 것이 세 번째였다. 그것이 1950년 5월초라고 기억되며 졸업작품으로 금강산을 그리려 갔음에도 금강산은 잠깐만 보여 주고 그림은 온정리에서 그리라고 했다. 인솔교수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당국의 지시라고만 했다. 하는 수 없이 온정리에서 농가 마당에서 도리끼질하는 풍경을 그렸다. 물론 원경에는 금강산을 넣었다. 그리고 농가 마루에 작은 책상에 맑스레닌주의 라는 책을 꽂아 놓고 작품 안에 넣으라고 강요당하였다.

우리가 금강산에 갔을 때는 남침 준비에 혈안이 된 그들이 금강산 골짜기마다 병력과 군수물자를 은닉하고 있었으니 출입을 통제할 수밖에.....

6.25가 나서야 비로써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6.25사변은

국가적 대제앙으로 금강산의 국보급 문화재인 신계사, 송림사, 유점사, 장안사 등등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힘들게 그린 졸업 작품은 결국 전시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네 번째의 금강산행은 1999년 동해에서 현대아산의 봉래호를 타고였다. 스캐치북과 카메라를 들고 설레는 가슴을 안고 출발하였다. 온정리라고 하는데 내가 그리던 옛날의 온정리가 아니었다. 획일화된 우중충한 잿빛 기와와 벽체의 집들, 빛 바랜 도시, 그리고 꿇기 없는 사람들이 잇따라 보이는 그야말로 유령의 도시와도 같았다. 그 옛날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여관촌과 활기 넘쳤던 온천장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었다. 감시원의 눈치를 보며 겨우 몇 장의 스캐치를 해와서 작품 한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년에 배가 속초에서 떠나는 바람에 또 한번의 금강산행을 하게 되었다. 모처럼 가을의 금강산을 만날 수 있었다. 마음은 앞서가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겨우 만물상에 가는 길목에 까지 갈 수 있었다. 속초에 돌아와 스캐치와 사진 등을 보며 한달여에 걸쳐 겨우 80호 짜리 한 장을 완성할 수 있었다. 정말 힘들게 만든 작품이다. 이 작품이 바로 「금강산 만물상 가는 길목에서」이다. 이 작품은 실경을 보고 그린 작품은 아니다. 실경을 보고 제작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물론 현장감도 부족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생에서 금강산이 남다르듯이 그 어느 작품보다도 애착이 남다른 작품이다.

2001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 갤러리에서 전시되는 한국 현대미술신기회 회원전에 출품한 작품이다.





정 광 섭

제주대학, 경희대 교육대학원 졸
항방전, 영동청년작가전, 챔버리초대전, 강원풍경화전
향토작가전, 강원미협전, 속초미협전
강원교원미전, 전국교원미전
강원도 dots토리현 교류미술전, 환동해권 4개국미술 초대전
강원도 미술대전 추천초대 출품
개인전 2회
강원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현, 전업작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172 원암화옥
자택) 636-0411 휴대폰) 019-362-0411

『成川里에서』

가을 산을 넘으며 '나'를 생각한다.

가쁜 숨을 고르며 잠시 앉은 자리에서 자연이 주는 가르침을 배운다.

수많은 세월 속에 빚어진 형형색색의 웅장하고 현란한 대자연에서 감히 넘볼 수 없는 큰 예술을 본다.

쓰러져 누운 고목과 그 아래 양지 틈에서 철모르고 돌아난 새싹에서 윤희를 보고, 다가올 차가운 긴 겨울과 현란한 새봄을 위해 아낌없이 낙엽을 떨구며 준비하는 겸허하고도 성스러운 자연의 섭리를 느끼기도 한다.

또, 고즈넉이 앉은 웅장한 자태위로 가버이 흐르는 바람, 구름을 보면 자연이 정중동을 실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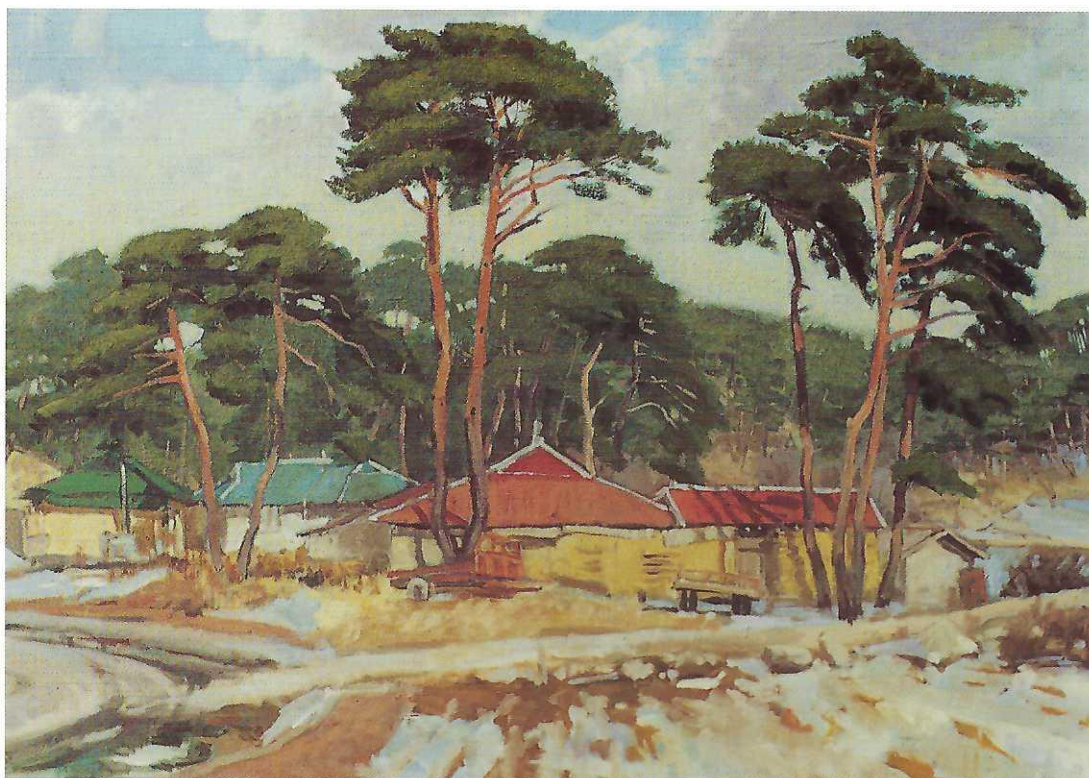
이런 속에서 '나'를 한없이 작고 초라한 찰나를 살아가는 인간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이 짧은 인생의 나머지라도 자연 속에서 지내고 싶어 '그림'에 화두를 걸고 잡다한 일상으로 부터 벗어나고자 뒤돌아 앉았으나 무엇하나 하지 못하고 잡다함에 더욱 매어 멍하니 먼 산만 본다.

아직은 더 많이 비워야 한다. 그 비우고 비운 속을 순수로 다져 채우고 물들지 않은 영혼의 향기가 화면에 배어 나들게끔 하고 싶다.

긴 세월 비바람에 씻기우고 연마된 자연처럼 열심히 갈고 닦아 철저한 내 틀을 갖고 싶다.

- 10월 중순 설악산에서



성신여대 동양학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1회 및 샌프란시스코 초청전
 강릉 신사임당 미술대전 우수상 (2001년)
 강원도전 (1999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1999년)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중앙미술학원 운영, 여성회관수채화 강의



지원 백 종 속

작품 「들」 이야기

우리는 작품소재를 위해 야외스케치도 가지만 사진기를 가지고 다닐 경우가 종종 있다.

원래 본인은 본인의 시각으로 느껴진 어린 시절의 추억, 기억의 잠재적 사고과정을 각기 다른 시각으로 변주시켜 이미지를 보다 내면적인 세계를 표현해 보는 것이 작품의 한 방향이었다.

본인은 오랫동안 한국화 비구상으로 작업을 했지만 생각하고 감상했던 부분을 가슴속에서 다시 아름다운 다른 형상으로 재구성하여서 토해내는 작업이란 버거운 일임에 틀림이 없기에 가끔은 있는 그대로, 사각 틀 안에서 조용한 자연을 표현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일반인들이 교감하고 쉽게 감상하고 생활 속에서의 그림이 삶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만족할 일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림 그리는 이들의 본래 모습은 아닐까?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숙제처럼 안고 살다가 어느 날 작품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보기로 결정하고 나니 정말 마음이 편해졌다. 그 후로 나의 산행은 더 많아졌다. 대청봉을 여러 번 오르고 온갖 들판을 찾아 나서고 조금 더 일상 속에서 찾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 열심히 헤매고 다닌 것 같다.

어느 날이던가 친구랑 고성 쪽에 한적한 논을 찾아서 깊이 자동차로 들어간 적이 있다.

오랜만에 마치 우리만의 시간을 찾은 듯 차 안에서 헤이즐릿 커피를 찾아 아주 맛있게 마시면서 열심히 설정에 심취해 있던 친구와 난 몇 발의 총소리에 크게 놀라 겁 많은 여자들이 혼비백산 그곳을 빠져 나온 적이 있다.

나중에 그곳에 사격훈련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도 사진속에 몇 컷의 풍경을 담아올 수 있어서 이 책 속에 그려진 논 모습은 그곳에서 스케치한 작품 중에 하나이다.

이 작품을 보면 친구와 고즈넉이 마시던 커피향과 보이는 것은 하얀 눈발 속에 수줍게 빠져 나왔던 벼의 밑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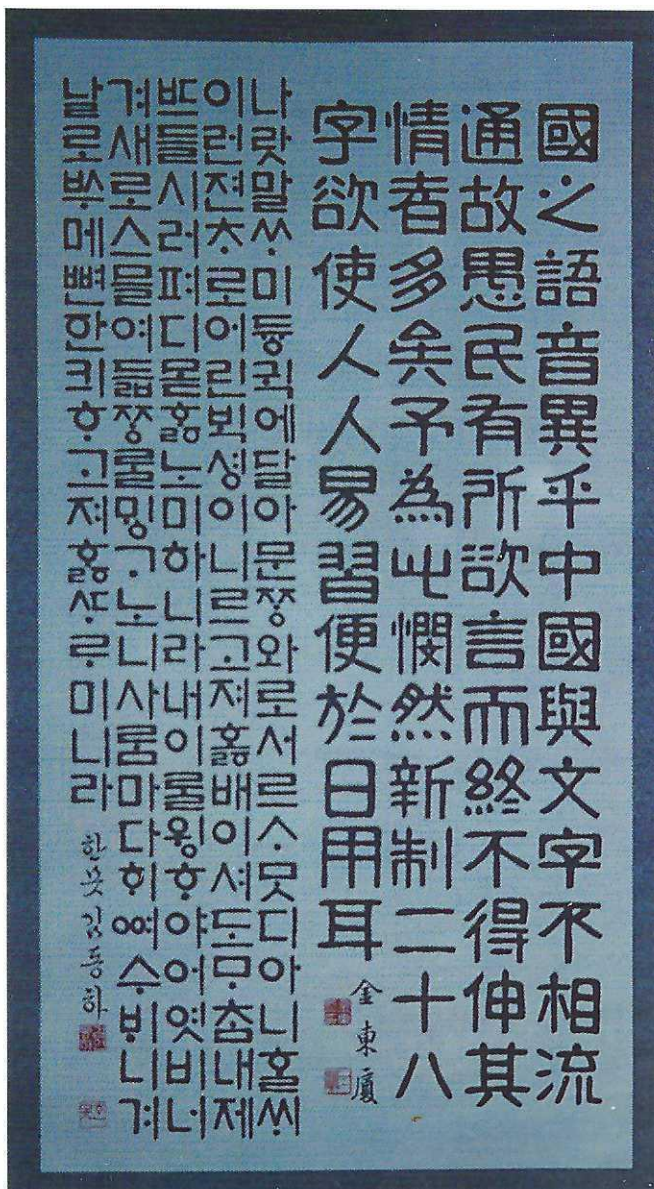
이, 아스라이 먼 곳
 일 듯한 먼 산, 곧
 무엇이든 돌아져 내
 릴 것 같은 진회색
 하늘과 정막함 속으
 로 빠져들지만 끝이
 어 아무것도 아니던
 일로 도망쳐 나오던
 우리들의 모습에 가
 끔 친구와 난 마주
 보고 웃곤 한다.



김 동 하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입선(연7회)
홍재문화예술교육진흥상(99년)
교육부장관 표창(2000년)
서예개인전(속초)
동우대학 서예부 지도강사 역임(90~2000년)
현 속초 · 양양도서관 · 여성교육문화센터 한문 · 서예 지도강사
현 청대초등학교 · 교동초등학교 한문교실 지도교사
현 속초서예 · 한문학원장

아래 작품은 우리 민족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업적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훈민정음 서문을 우리 조상들의 일이 순박하게 표현된 광개토대왕비(廣開土大王碑)에 표현된 서체 (즉, 한비(漢碑)의 예서(隸書)나 당비(唐碑)의 해서(楷書)같이 인간의 힘을 극한(極限)까지 나타내서 만든 완전주의 보다는 폭넓고 인간적인 따스함이 배어있는 서체)를 한쪽은 한문서문을, 한쪽은 한글서문을 원필로 표현하였음.





정봉재 / 권 태



- 신라미술대상전 입선('86 경주서라벌문화회관)
-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86 국립현대미술관)
- INDEPENDANTS('88 국립현대미술관)
- 한국미술협회 회원

예술가가 지고 가는 짐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가벼워지지 않는다.

그 묵중함 속에는 삶이 요구하는 긴장, 예술적 활동이 부과하는 세계와의 부조화 등.

때론 반항하고 지겨울 땐 공식화된 세계속으로 투항하고 싶다는 유혹도 느낀다.

예술가의 공식화된 사적존재를 수용하여 면죄의 특권을 이용하여 즐기는 사람, 일종의 키치맨 같은 예술가가 되거나, 관청 앞 분수조각을 만들면서 공식적 가치에 달라붙어 사는 사람이 되거나 할 수도 있다.

보아야 할 것이 많아진 시기이므로 양쪽을 왕복운동하는 형태와 방법을 단일한 공식으로 제시할 수 없지만 작가 자신이 그 운동의 어느 지점에다 역점을 두고 있는 지를 확인하면서 자기의 각본을 세워나가는 것이 더욱 요구 될 것이다. 그것이 이시대 예술가가 갖고 있어야 할 일종의 양심, 곧 예술이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이다.

양심선언의 공적인 가치는 자기반성의 절차를 거친 후에 나오는 것이며 예술가의 양심선언은 무엇보다 작품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가장 힘있다.

일류로 살고 싶다.

어딜보아도 일류와 삼류만이 존재한다. 자신이 삼류인지 모르는 일류, 일류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삼류. '일류'란 틀에, 단체에 소속되고 싶어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일류가 추구하는 삼류의 유지한 일이다.

오늘도 엉뚱한(?) 상상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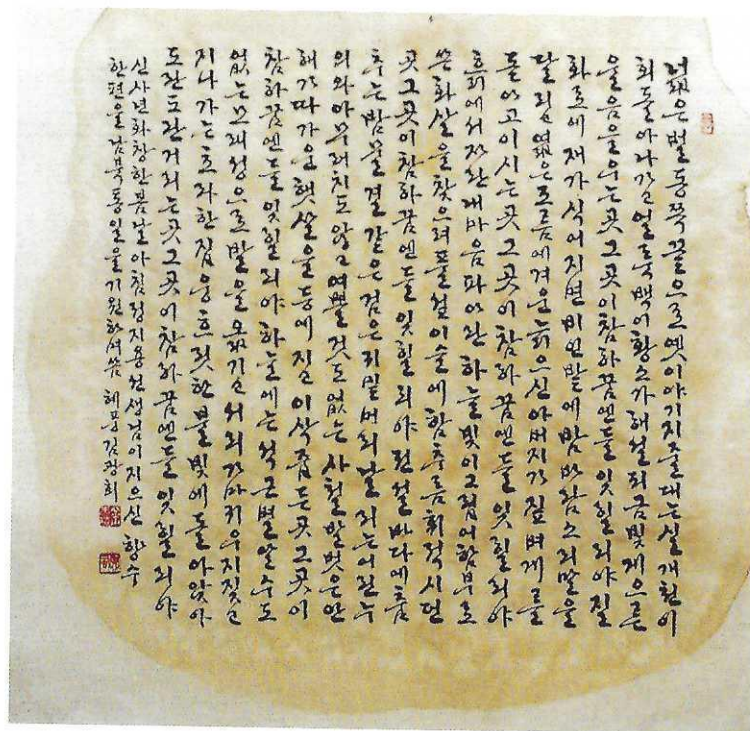
'비평없는 작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작품없는 비평은 불가능하다.'

2001년 스케치북 속에서.....



공재숙 / 토지

- 여성화우 소미회전
- 아름다운 서울그림전
- 현대사생회전
- 독일 베를린 시장초대전
- 미의식의 표상전 우수작품상
- 14회 대한민국회화대전 입상
- 관악현대미술대전 입상



김광희 / 정지용의 향수



- 서양화개개인전 2회('69 속초, '70 춘천)
- 미술 · 서예지도표창 18회 수상
(주한인도대사, 내무부장관, 홍익대, 이화여대 미술대학장 등)
- '92 강원서예상 수상, '97 속초시 문화상 수상
- 동아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 연2회 입선('99, '01)
- 대한민국서예전람회(예술의 전당) 연5회 입선('96, '00), 특선('01)
- 강원서예대전 초대작가, 동 운영위원, 심사위원
- 대한민국 한글서예대전 심사('01)
- 환동해권 4개국 미술초대전 (일본 요나고) / 국제 서도예술전 초청출품(일본 동경)
- 현, 강원도서예가협회장, 강원도미술협회 부회장, 속초미술협회장



김길자 / 연



- 대한민국특별문인화대전 입선 2회
- 대한민국 문인화전람회 특선
- 강원서예대전 문인화부문 특선
- 강원서예대전 4회 입선
- 현, 양양여성회관 사군자강좌
- 고성군 여성회관 사군자강좌



김명분 / 수 국

- 부산생
- 선학회 회원전(1984~)
- 아현회 회원전(1988~)
- LA문화원초대전
- 파리 한국문화원 초대전
- 중국전 수회(북경, 항주, 사천성 등)
- 강원현대한국화협회전





박동국 / 아바이 마을의 갯배 II

- 수채화 개인전('96 춘천미술관)
- 수채화 개인전('99 속초문화회관)
- 수채화 개인전(2001 한전플라자 갤러리)
- 한국정예작가초대전(2001 동아갤러리)
- Inter ART Korea주최 한국미술오방위전(2000)
- GROUP [THE] 창립전('99 춘천미술관)
- 초대/단체전 50여회, 각종 공모전 입상 8회



31



박영근 / 2000出



- 관동대학교 미술과 및 동대학원 조소과 졸업
- '95 1회 개인전(강릉문화예술회관,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 MBC 한국현대조각 초대전(춘천MBC)
- '95 강원도 미술상 수상
- 54인의 조형이념과 표현전(코스모스갤러리)
- '97 26인의 표현 · 강원현대작가회전(원주신화랑)
- '98 제2회 개인전(속초문화회관 전시실)

- '99 전통과 몽상전(강릉시 문화예술회관)
- 2001 C아트갤러리 개관기념 조각초대전
- 현, 관동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출강

바쁜 일상에서의 손쉬운 사생도구 카메라 옵스큐라 (camera obscura)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회원
한국사진작가 협회회원

최 낙 민

핀홀 카메라의 원조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에 의해 만들어진 “카메라”는 라틴어로 방을 뜻하며 “옵스큐라”라는 뜻은 어둡다는 말이다. 「예술사전시리즈 사진용어책 : 미진사」 1568년 렌즈를 부착하여 사용하게 된 바루바로스는 그 당시 화가들의 사생도구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사진으로는 니엠프, 다게르, 탈보트 등에 의해서 사용되어 왔다.

오늘날 미술대학 정규과정에서도 소양과목으로 카메라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있으며 서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환등기를 이용하여 드로잉에서부터 채색까지 다양하게 작업하는데 용이하게 쓰여왔다. 풍경의 경우 명암의 비율이 6:4 정도로 오후 2시 ~ 4시경 사광이 좋으며, 인물 또는 정물은 선을 중시하므로 명암비 7:3 정도면 적당하다. 경우에 따라 어두운 부분에 반사판을 대주어 선을 더욱 명확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이처럼 하기까지는 정확한 노출과 초점이 맞아야 하며 확대하였을 때 망점이 굵게 나와선 낭패를 본다. 인간 눈의 망막은 127,000,000개 정도로 화소수(범위 : 12.7 × 12.7mm)를 가진다고 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코닥 액타크롬 슬라이드 필름 24 × 36mm는 약 1,350만개의 화소수를 가지고 있다. 최근 디지

털 카메라의 생산품이 800만 화소 수치까지 나오므로 스틸 사진의 필름 화소수가 두배 가까이 높다고 봐야한다. 정확한 구도와 색상을 얻고자 할 때 주의할 점은 카메라를 손에 들고 촬영하는 것 보다 삼각대에 장착시켜 찍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심도를 깊게 조일 수 있고 초점도 선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저속으로 셔터를 누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삼각대 사용은 필수적이다. 그때마다 20 ~ 30cm 케이블 선의 릴리스(release)를 이용해 셔터를 누르는 것이 피사체를 흔들리지 않고 곱게 받아내는 자세이기도 하다.

미술창작의 과정은 무한한 인내심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성취감을 표출하는 평면작품으로서, 좀 더 친숙하고 흥미감으로 함축, 표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수능시험 대하는 수험생처럼 괜한 긴장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필자가 보고온 광주 비엔날레 작품경향을 보면서 느낀 점은 현대미술의 개념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소재나 기능 면에서 무한한 미술영역으로 다양, 다원화된 양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미술의 새로운 발상은 디지털시대의 메카닉(mechanic)으로 인해 새롭고 성숙되어진, 작가의 독특한 표현언어로 그 작가의 이미지가 각인

되어지고 있는 요즘을 확연히 느끼게 한다.

우리 주위에 이루어지는 미술창작 영역으로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디지털영상인데, 촬영에서 인화, 확대까지 가능한 디지털 인화점이 속초에도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 일상화 되었음을 말해준다.

정확한 덧셈이나 갖가지 합성기능 활용으로 부족한 시간을 적절히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응용방법도 하루가 다르게 다양화 되고 있다. 한가지 예로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풍경을 활용하여 광고사에 찾아가면, 현수막을 찍어내는 대형 컴퓨터 프린터기에 연결된, 스캐너(Scanner)로 원하는

규격에 따라 (사진 또는 필름가능) 복사하여 캔버스 위에 얹혀놓고 덧셈을 뜬다. 처음엔 전통적인 방법을 어기기라도 하듯이 부끄럽기까지 하겠지만, 바쁜 시간에 쫓기듯 살아가는 요즘 방법으론 아주 효과적이 아닐 수 없다(사진참고). 대체로 작업량이 많은 미술가들에게 이와 같은 기법도 좋은 예가 되 주었으면 한다. 하지만 창작품은 긴 여유를 갖고 만족할 때까지 소신있게 그려내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는 건 필자의 욕심이자 바람이기에 어쩔 수 없다.

사 진 참 고



원 화



그림 : 150cm × 270cm



지·상·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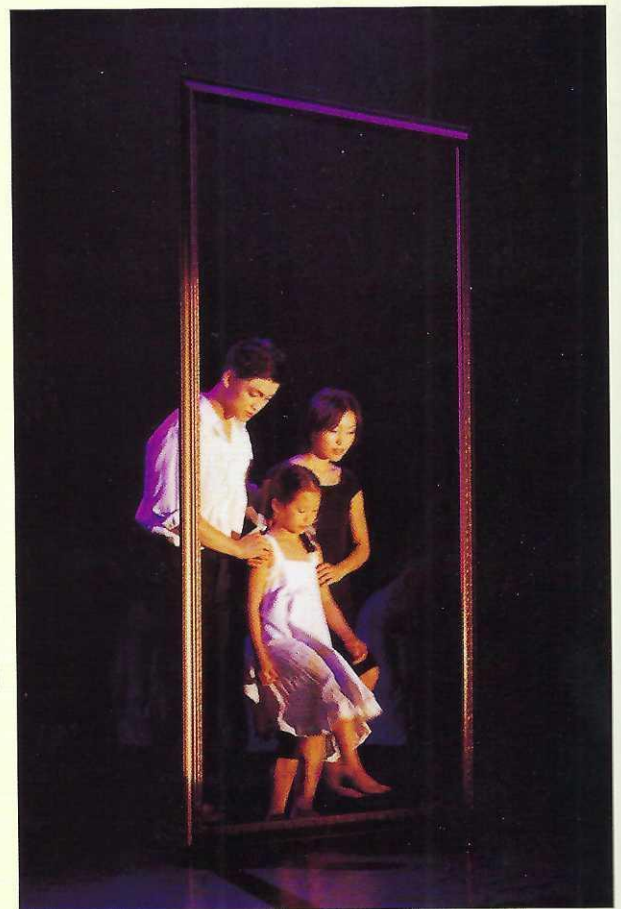
최구현 / 생업



- 현 속초사진협회 고문
- 속초시 중앙동 497-96
- (033)633-2062
- 속초시 문화상, 속초예총 초대회장



- 현 속초사진협회 운영위원
- 속초시 중앙동 476-9 명성칼라
- (033)633-2029, 011-375-0998
- 2001년 국민포장 수상
- 2000 강릉전국 사진공모전 입선외 다수
- 2001년 개인전 (시간)
- 한국사진작가협회 준회원



최흥영 / 출발



지·상·관·려·리



김성호



- 현 속초사진협회 운영위원장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백촌리 109
- (033)633-5887, 011-379-5884
- 2000 원주 치악공모전 입선외 다수
- 2001 개인전 (얼)
- 한국사진작가협회 준회원



- 현 속초사진협회 회장
- 속초시 청학동 642-64
- 속초시청 관광과장
- (033)633-5553, 011-375-9578
- 2000 속초 관광사진 공모전 외 다수



최용철 / 정 박



지·상·갤·러·리



김형관 / 승 무



- 현 속초사진협회 총무
- 속초시 조양동 부영④ 507-310
- (033)636-6561~2, 017-371-1338
- '99 강원사진 공모전 입선
- 2001 제물포사진대전 입선의 다수
- 2001 개인전 (자연)
- 한국사진작가협회 준회원



- 현 속초사진협회 회원
- 속초시 노학동 312-2
- (033)633-2882, 7722, 019-398-72744
- '97원주 치악사진공모전 입선
- 개인전 (설악의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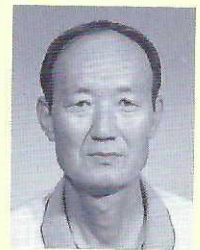
최이권 / 대청봉의 설경



지·상·갤·러·리



황동석 / 일 출



- 현 속초사진협회 부회장
- 속초시 교동 773-1 명동당구장
- (033)633-3725, 011-364-3725
- 2000년 속초관광사진 공모전
입선외 다수



- 현 속초사진협회 운영위원
- 속초시 교동 773-1
- (033)635-6379, 017-707-6379
- '99 할강사진공모전 특별상
- '96 강원사진대전 특선의 입선다수
-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황병진 / 상천에서 본 외설악의 운해(여름)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를 마치면서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장
박 영 미

몇 날 전, 직원들과 회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너무 오랜만이라 기억 할 지 모르겠네요. 나 o o예요" 난 그만 "헉" 소스라치듯 놀라고 말았다. "10분 후에 다시 하시겠어요?" 서둘러 회의를 끝냈으나 가슴이 벅차 올라 차분히 앉아 있는 법을 잊은 듯 했다.

"나도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 내 대답이 끝나자, 그건 정말 오우버 랩 이었다. 그 아이는 내 두 손을 잡고 불빛 희미한 교회 마루바닥에 꿇어앉아 "주님! 좋은 내 친구, 너무 감사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고입시험을 끝내고 춘천으로 입학하러 가기 두 달 전, 난 그 애와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다. 서울에서 이사를 와서 중 고등 학교 시절을 이곳에서 보내던 그 아이는 친구의 인도로 나와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것이다. 황순원의 '소나기' 속의 소녀 같은 남자 아이였다. 거의 모든 것들이 상반되는 분위기로 인해 먼 발치에서 떨림으로나 바라봄직한 나에게 "너의 진실함을 배우고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이 친구이길 원하는 그 아이의 제안이었다. 그 두 달 간, 나름대로 진지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춘천에서의 일년동안 우리는 하루도 어김없이 편지를 주고받았다. 푸른 바다처럼 펼쳐진 우리 삶의 앞날을 어떻게 장식해 갈 것인가가 대화의 전반적인 내용이었다. 나이는 같았으나 나보다 한 학년 위인 그 아이가 고3이 되면서 서울로 전학을 했고 나는 일년동안 잠복해 있었던 향수병의 심한 발열로 고2가 되면서 속초로 전학을 오게 되었다. 서로의 연락이 뜸해졌다. 일년에 한 차례 쯤, 속초에 왔었던지 영원한 친구이길 원하는 메모지 한 장만 우리 집 문틈에 끼워 놓고 말없이 다녀가곤 했었다.

군인을 막 다녀온 그 애를 만난 적이 있다. 꼭 이십 년 전 일이다.

친구를 통해 서울에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 대략 십 여 년 전 일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아주 간혹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고교시절 춘천에서 여름방학을 보내러 왔던 내가, 청호동 바닷가에서 작고 파란 성경책을 읽어 주었던 오래 전 기억을 예쁜 동화로 거듭 읊조리곤 했었다. 분주히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 앞에, 빛나는 꿈을 간직했던 그 시간은 더도 덜도 없을 삶의 아름다운 감동이라며 말을 못 맺곤 했었다. 자기 삶에 충실한 너무도 의연한 모습의 그 아이를 만나고 오는 길목에서는 나도 한참이나 어떤 기억으로 행복해 하곤 했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기억에 없으나 작고 파란 성경책을 읽어 주던 그 고교시절이 내게도 한편의 동화로 남아있음이 이유가 아니었던가?

꼭 10분 후에 전화가 올랐다. 적어도 '나만을 위한 삶'은 배제되어야 않겠냐는 그 옛날 우리들 대화처럼, 화려했던 그의 삶을 뒤로 한 채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음악가족이었던 그가 노래선교단체를 만들어 양로원과 군부대에서 찬양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는, 지금의 그의 생활들을 오래 전 내가 성경을 읽어주듯 잔잔히 들려주는 것이었다. 진정한 행복을 이제야 느낀다는, 그때마다 파란 성경책을 읽어주며 희망의 이야기들을 함께 했던 내 생각이 난다는 전화였다. 통화 중, 콧등 시큰거리는 이상한 감동을 막을 길이 없었다. 그리고 고마웠다. 배품 속에서 행복을 얻는 내 친구가...

고교 시절 사랑스러운 계절 속에서 꽃피었던 지난 꿈들을 기억 해 볼 때면, 가고싶지만 갈 수 없는 그 시간 속을 살아가는 푸른이(청소년)들이 너무도 사랑스럽다. 그런 이유인가? 삶의 가치와 드높은 희망으로 인해, 때때로 고민의 숲에서 울고 웃기도하는 푸른이들의 숨결이 마음껏 펼쳐지는 연극 축제의 마당은, 거듭되어 갈수록 온통 즐거움이다.

올해도 여지없이 이곳 바다 마을에서 펼쳐지는 푸른이(청소년)들의 푸른 축제의 한 마당으로 어디에선가 훔날려 오는 향긋함이 있다. 아카시아 향기다. 오늘따라 담장마다 넘쳐흐르는 붉은 줄장미도 설레도록 어여쁘다.

모두가 아름답다 푸른이(청소년)들 속에는... 꿈과 방향과 고민까지도...

역기능의 매스컴과 음악

임 수 철

I. 무소불위하고 전지전능한 매스컴

요즘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고 있을라치면 하나도, 혹은 별로 잘난 게 없는 사람들이 진짜 잘난 사람으로 둔갑하여 설치고 다니는 꼴을 봐야하는 게 여간 큰 고역이 아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학자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다. 도대체가 사이비들 관인데, 매스컴에서는 진짜라고 하니 순진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보다, 하느님보다 더 무소불위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바로 매스컴이라고 한다. 정말이지 매스컴보다 더 막강한 권력자가 또 있을까? 그래서인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라는 동요곡도 있다.

II. 알고보면 졸작, 가곡 그리운 금강산

이렇듯 매스컴만 잘 타면 미꾸라지도 하루 아침에 용이 되는 게 바로 지금의 우리 현실인데, 언젠가도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 주장한 바 있듯이 순수해야 할 음악계조차 매스컴에 아주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아주 형편없는 음악 작품이 매스컴에 의해 명작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명작이 매스컴을 타지 못해 그냥 묻혀버리고 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예컨대, 이제 우리 4천 5백만 국민 모두의 애창 가곡이 되다시피한 '그리운 금강산'이란 노래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운 금강산은, 음악 평론가 최인봉씨도 이미 주장한 바 있듯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매스컴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 유명해진 곡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노래를 결정적으로 좋아하게 된 이유는 가사의 내용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분에게는 별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겠지만 이 가곡의 가사 내용은 다분히 반공산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의 주재런가 맑고 고운 산수수만년 아름다운 산 더럽힌 지 몇몇해
오늘에야 찾을 날 왔나 금강산은 부른다.

따라서 이 가곡은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가장 싫어했던 노래였다고 한다.

"아니, 우리가 금강산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 관리했는데 더럽혔다고 그래? 만약에 남조선에서 관리했으면 개발이니 뭐니해서 다 땅가뜨렸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언제 금강산을 뺏아왔다고 그래? 금강산은 원래부터 그 자리 그 곳에 있었던 건데...."

2절 가사 앞부분 역시 다분히 반공적인 내용이다.

비로봉 그 봉우리 짓밟힌 자리....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가 후에 남북 회담을 계기로 해서 일부 수정되어 '더럽힌 지'가 '못가본 지'로 바뀌었는데, 하지만 아직도 일부 음악교과서에는 여전히 서슬 퍼렇던 반공 시대의 가사 그대로 실려 있다.

가사 내용은, 어쩔 수 없는 분단 상황에서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치고, 진짜 문제는 곡 그 자체에 있다. 한 마디로, 그리운 금강산은 결코 뛰어난 음악 작품이 아니다.

곡이 못갖춘 마디로 시작된다는 점 (영어와는 어순이 정반대인 우리말 가사는, 원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갖춘 마디로 시작해야 가사가 잘 살아난다.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작곡 상식이다.), 음악적 질료(質料)가 우리 정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4박자에 7음의 장음계라는 점, 그리고 곡의 분위기가 마치 오페라의 아리아처럼 지나치게 현란하고 과장스럽다는 점 등등 수 많은 결점 들을 가지고 있다. 작곡자 자신도 이 가곡이 결코 명곡이 아니라고 시인한 바 있다. 그리운 금강산의 작곡자 최영섭씨의 진짜 명가곡은 사실 '추억' 이라는 노래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이 노래는 대중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반면, 김성태 작곡의 추억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어쨌거나, 그리운 금강산은 워낙 유명한 곡이 되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작곡자가 이 곡 하나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매달 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III. 흥남파 가곡 역시 피장파장

이러한 사례가 비단 그리운 금강산 뿐이겠는가? 매스컴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왜곡된 음악 교육이라는 매스컴에 의해) 가장 그럴싸하게 과대 포장되어 명작이 된 대표적인 노래는 바로 흥남파의 가곡이 아닌가 싶다. 언젠가 중학교 음악 교과서를 분석해본 적이 있었는데,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가곡 중 흥남파 가곡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0%나 되었다.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듯이 흥남파의 가곡은 결코 명곡이 아니다. 서양 음악이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밀려들어오던 시대에 서양 가곡 스타일로 어설픈 흥내내어 한국 가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곡을 만들어낸 음악적 딜레당뜨가 바로 흥남파였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우리 전통가곡은 거의 멸절 위기에 까지 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었으며 이 과정에서 마치 혼혈아처럼 태어난 가곡이 바로 흥남파의 가곡인 것이다. (흥남파의 가곡이 어째서 명곡이 아니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급은 이미 여러 차례 음악 전문지를 통해서 발표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뿐만 아니라, 흥남파의 적극적인 친일 경력은 여전히 해결되고 극복되지 않은 큰 숙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남파의 가곡들은 불후의 명곡으로 위장되어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새삼 날조된 매스컴의 폐해에 대해 절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아닌 게 아니라 음악 방송 가곡 프로에도 흥남파의 가곡은 단골 레퍼토리로 계속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IV. 이제 단아야 할 열린 음악회

현재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음악회 중에서 아마도 KBS의 열린 음악회 만큼 유명한 음악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방의 각 자치 단체에서도 열린 음악회를 한번 유치하는게 마치 역사적 사명, 아니 음악적 사명인 것처럼 되어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이 열린 음악회야말로 매스컴의 날조가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전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열린 음악회는 한 마디로 음악회가 아니다. 음악 이벤트이다. 그것도 실속은 전혀 없이 덩치만 큰 대형 이벤트이다. 수 년 전 취재차 열린 음악회 현장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과연 엄청난 규모였다. 귀빈석에 앉지 않으면 무대가 보이지 않았다. 곳곳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로 봐야했다. 굳이 무대를 보려면 망원경이 필요했는데 실제 망원경 장수가 청중석을 이지저리 비집고 다니면서 망원경을 팔고 있었다. 그 망원경은 싼 것과 비싼 것 두 종류가 있었는데, 싼 망원경은 성능이 나빠 잘 보이지도 않았다. 정말 별 희한한 음악회도

다 있었다. 그 뿐만 아니었다. 행사장 주위에는 온갖 잡상인들로 가득했다. 난장판 그 자체였다. 심지어 청중석 사이로 다니면서 술을 파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오픈 행사의 저속함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에서 벌어지는 열린 음악회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온다. 그런데, 오픈 행사의 진행자 개그맨이 아무개씨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저속함의 극치를 달리는 내용의 개그로 청중들을 우롱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었다. '과거 있는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못생긴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개그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지껄여댔다. 어린이 청중들 보기에 정말 민망했다. 물론, TV로 중계될 때는 편집하여 내보낸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열린 음악회의 실체를 모른다. 정말 좋은 음악회인 줄 안다. 열린 음악회가 이런 식이다보니 특히 어린이 청중들에게 아주 좋지 못한 후유증을 남긴다. 아무 때나 박수치고, 아무 때나 들락거리고, 아무때나 먹고 마신다.

열린 음악회의 후유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열린 음악회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기존의 순수 음악회가 거의 전멸을 한다. 기존의 순수음악회는 우선 규모면에서 열린 음악회와 비교가 안 된다. 어마어마한 자본력과 매스컴의 위력을 무기로한 열린 음악회... 마치 거대한 공룡이나 황소 개구리 같다고나 할까?

열린 음악회는 규모에 걸맞게 스폰서도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한번 치르는 데 2억 정도라고 한다. 이 정도 돈이면 순수 음악회를 몇 십 번 치를 수 있는 거액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음악회가 바로 열린 음악회인 것이다. 그래서 음악 평론가 탁계석씨는 이제 열린 음악회는 달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 의식있는 여러 음악인들이 열린 음악회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열린 음악회는 주지하다시피 여전히 존재하다. 대통령보다 더 권위가 막강한 매스컴의 맹주 KBS가 그 까짓 힘없는 몇몇 음악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리가 없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대부분 음악인들은 열린 음악회에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출연해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일단 한번만 출연했다하면 하루 아침에 유명 음악인이 될 수 있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마다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심지어 청와대에게서 줄을 대는 음악인도 있다고 한다. 물론, 출연 교섭이 들어와도 사양하는 정말 순수하고 지조있는 음악인도 있지만... 솔직히 필자도 이런 글을 써서 KBS에 밀보여 현실적으로는 득이 되는 게 없음을 고백한다.

아무튼 음악계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열린 음악회는 이제 정말 문을 닫아야 한다.

V. 왜 하필이면 조수미인가?

'임수철이라는 평론가가 도대체 어떤 놈이지? 만나기만 해봐라. 먹을 따놓겠다. 이름도 없는 무명 평론가 주제에 감히 조수미를 비판해?'

몇 년 전, 모 음악지에 조수미에 대한 비판의 글을 발표했다가 조수미의 열렬한 팬으로부터 받은 항의 전화 내용이다. (항의 전화라기보다는 협박 전화이지만)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겠지만 조수미는 명지휘자 카라얀에 의해 더욱 주가를 올린 유명 성악가다. (조수미의 목소리는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카라얀이 극찬함) 하지만 역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듯이 카라얀은 유명세 만큼 그리 훌륭한 지휘자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지휘자 정명훈보다 못하다는게 음악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이다.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닌 필자가 판단하기에도 사실인 것 같다. 카라얀이 지휘한 베토벤의 운명이나 전원 교향곡을 들어보면 더욱 그러한 느낌이 든다. 화려하고 현란하기만할 뿐 안정감이 없고 길이가 없다. (필자의 주장이 믿기지 않는다면 푸르트 뵐글러나 칼 뵐이 지휘한 베토벤 교향곡을 카라얀과 비교해서 들어보기 바란다.) 심지어 카라얀은 자신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실력으로 장악하지 못해 돈으로 다스렸다는 소문도 있다. 더욱이 여성들과의 추문은 음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카라얀의 조수미에 대한 극찬이 무슨

권위와 신뢰성이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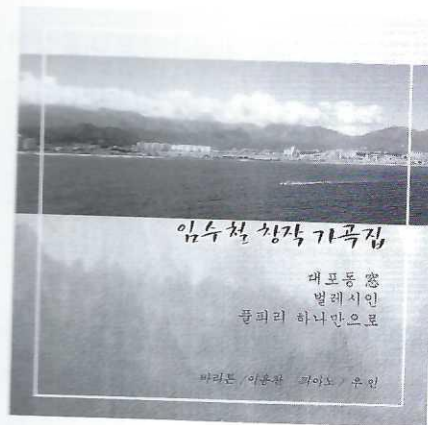
그럼 조수미는 어떤 인물인가? 이제서야 고백하지만, 몇 년 전에 발표했던 필자의 글은 사실 매우 완곡한 내용의 글이었다. 다시 말해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한 글이 아니었던 것이다. 조수미는 노래를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음악외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성악가이다. 대학 시절(서울대학교) 조수미의 사생활은 화려함 그 자체였다. 조금 현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너무나도 디오니소스적이며, 카오스적이었다. 오죽했으면 당시 학부모들이 '수미하고 놀면 사람 망가지니 그 애하고 절대 같이 놀지 말라'고 까지 했을까? 조수미가 유학을 간 것도 순수하게 학구적인 동기에서라기보다 남자 친구와 헤어짐으로 인한 아픔과 상실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성악가로 성공을 했다. 음악적인 실력도 있었지만 음악외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해서 성공을 했다. 음악외적인 요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물론 매스컴, 특히 KBS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말해주듯이 조수미의 목소리는 제주만 넘칠 뿐 인품이라든가 고상함이 없다. 한 마디로 너무 천박하다. 그래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에 잘 맞는 오페라 아리아는 잘 소화해 내지만 독일 리트(예술 가곡) 형태의 노래는 영 소화를 못 시킨다. 한(恨)의 요소가 있는 한국 가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수미가 부른 한국 가곡이나 민요는 정말 한번 유심히, 그야말로 별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았던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들어보라.

이러한 조수미를,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로 내세우기에는 조금은 낮이 뜨겁다는 생각이 든다. 조수미처럼 현란하고 요란하고 유명하지 않아도 인품이 있고 실력이 있는 소프라노도 많다. 어쨌거나 매스컴에서는 또 한 번 조수미를 음악적으로 크게 활용할 모양인 것 같다. 2002년 월드컵 찬가를 조수미에게 부르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발 조수미만은... 개인적으로 필자는 조수미가 소설가 최인호처럼 변하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젊은 시절의 최인호는, 당시 그의 소설 작품이 말해주듯이 고상함과 정말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지금은 참으로 훌륭한 인격자로 변했다. 그의 인격 만큼이나 작품도 좋다. 더 이상 제주만으로 글을 쓰지 않는다. 외모까지도 변했다. 생긴대로 놀고 노는대로 생긴다는 말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조수미에 대해 거는 기대가 있다. 사울이 바울로 거듭났듯이 조수미 또한 그러한 거듭남으로,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소프라노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VI. 다시 히트곡이 된 로망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매스컴이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다. 매스컴의 순기능 사례를 한 가지만 예로 들면 바로 로망스라는 곡의 재히트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스페인 민요인 이 곡은, 몇 십 년 전 클래식 기타곡으로 편곡되어 '금지된 장난'이라는 영화 음악으로 사용되어 공전의 히트곡이 되었는데, 근래 인기 드라마 '가을 동화'에 또 다시 삽입곡으로 사용됨으로 인해서 요즘 신세들에게까지 인기곡이 되었다. 따라서 클래식곡뿐만 아니라 전통 국악곡도 매스컴이 제대로 순기능만 발휘해주면 얼마든지 히트곡이 되어 국민 정서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매스컴이 주로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도 막강한 매스컴이라는 공룡... 이 괴물 앞에서 필자의 필봉은 그저 한없이 무력하기만한 것 같다.

임수철 창작가곡집 출판



대포동 창, 벌레시인, 풀피리 하나만으로 등 수록

임 수 철

한국작곡가협회 회원

한국음악평론가협회 이사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 부지부장

임수철은 강원도 속초 사람이다. 설악산과 동해를 앞 뒤로 두고 사는 그는 늘 어린 아이처럼 맑다. 그의 눈동자도 그 창을 통해 들여다 보이는 영혼도 큰 호수의 수면처럼 푸르고 맑다. 이 투명한 오염되지 않은 임수철의 세계는 작곡가 임수철의 작품세계가 된다. 임수철이 최근에 연가곡 〈대포동 창〉과 〈쑥국새〉 〈벌레시인〉 〈풀피리 하나만으로〉 〈언덕〉 〈귀천〉 등의 15곡을 묶은 창작 가곡집을 출판했다. 피아노 반주는 우 인, 바리톤 이용찬 씨의 노래, 음반제작 이준.

첫곡 〈쑥국새〉부터 작곡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얼핏 지나가면 단순한 가락과 단아한 구성의 가곡이다. 그런데 다 듣고 있으면, 오만가지 상과 우주의 무계가 깃들여 있는 복잡함을 느낀다. 바로 산같은 변화와 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계 같다는 생각이다. 이 때문에 임수철이 창작가곡집 15곡을 다 듣고 났을 때 내린 결론이 설악산과 동해를 품고 있는 작곡가라는 것이었다. 그의 몇 편의 노래들은 지극히 전통적이며, 그것도 단순하다할 만큼 단아하다. 한적한 정자에서 고요히 시조를 읊고 있는 노인의 고상함이 충분하다 할까. 적어도 〈풀피리 하나만으로〉의 맛은 가슴시릴 만큼 자연의 고상함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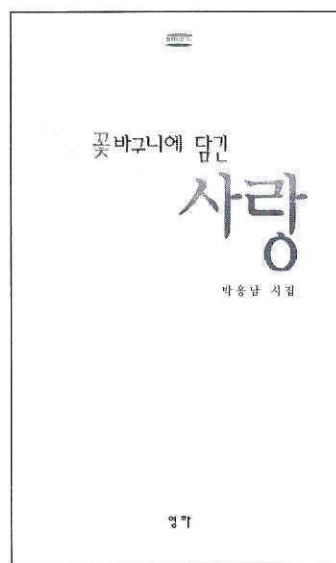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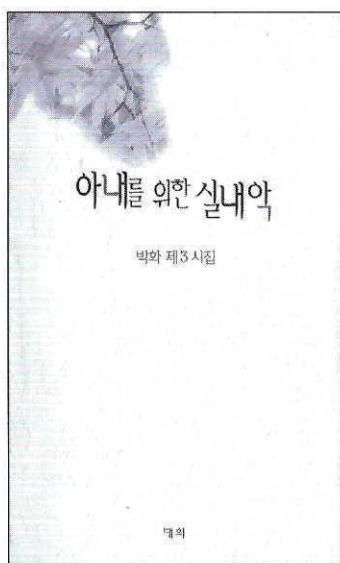
비교적 그의 세계는 어둡고 무겁다. 작곡가가 세상을 내면중심에서 음미하며 살기 때문일 것이다. 〈쑥국새〉나 몇 편의 가곡에서 보듯 꽤 보수적일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느 류에 잡히지 않고 빠져나가는 저항과 객기도 만만치 않은 작곡가다. 특히 10편의 시로 묶은 연가곡 〈대포동창〉에서는 세 가지 세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작곡가가 섰 때 작곡가들이나 청중의 평가에서 자유스러워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지극히 서양음악 전통기법으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전통국악적 요소로 틀을 잡기도 하고 여기에 실험적 무조가 뛰어들어 참으로 다양한 작업들이 설악의 사계처럼 펼쳐진다. 느린 파도로 바위를 철석이며 장단을 맞추는 그런 세계가 청중을 입맛나게 한다. 적어도 〈대포동 창〉이나 임수철의 가곡들은 한국적 작업을 고민하고 있는 작곡가들이 한 번쯤 섭렵해야 할 교과서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노작이다. 〈음악저널 11월호에서〉

시집발간과 등단

속초문협회원들의 개인 시집 발간과 등단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박화시인의 「아내를 위한 실내악」이 도서출판 <대희>에서 발간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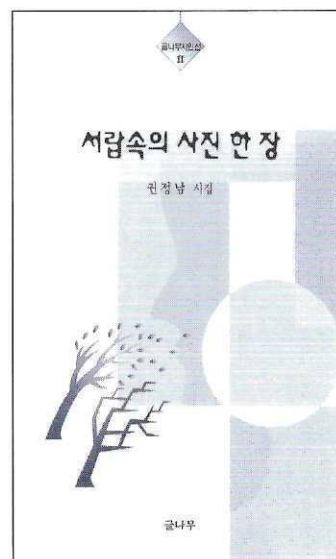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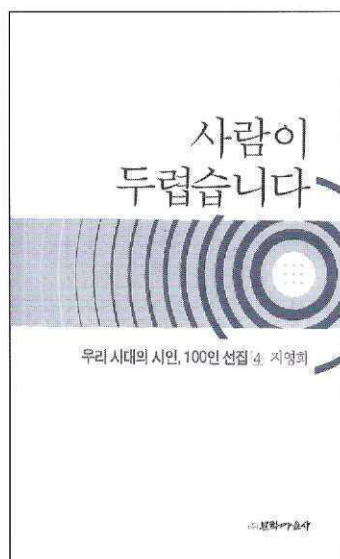
을 비롯하여 2001년 4월에는 박웅남 시인의 「꽃바구니에 담긴 사랑」이 <영하출판사>에서 발간되었다.



김종헌 회원은 「문학마을」 여름호에 <풍경> 외 2편이 윤재근, 강윤수, 이상호 시인의 추천을 받아 등단의 영예를 얻게 되었다.

권정남 시인은 2001년 9월 「서랍속의 사진 한

장」을 <글나무>에서 발간하였고, 12월에는 지영희 시인도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시집 「사람이 두렵습니다」를 발간하였다.



한국미협 속초지부 2001년도 회원 활동실적

2001년도 본 회 회원 주요활동 실적은 국제전 8명 출품, 개인전 4명, 강원도 미술대전 추천작가 2명 인준, 강원서예대전추천작가 자격획득 1명, 강원도교원미전 추천 작가상 2명(초대작가 자격 획득), 강원도 교원미전 추천작가 자격 획득 2명, 영랑호 설화 상징 조형물 당선, 대한민국한글서예대전 심사 등 그 어느 해보다 활동 실적이 우수하였던 한 해라 하겠다.

〈2001년도 회원 활동실적〉

- 김종학(명예고문) 개인전(서울), 강원도, 돛토리현 미술교류전(춘천)
- 김광수(고문) 강원도 미술대전 추천, 초대작가전(춘천), 강원도, 돛토리현미술교류전(춘천)
- 김광희(지부장/서예) : 대한민국한글서예대전 심사, 강원서예대전심사, 운영
강원서예대상전심사, 심사임당회호대회심사, 삼척문화제회호대회심사
대한민국서예전람회 특선, 동아 미술제 입선
한 · 일 우호교류전(일본 도야마현) 국제서도예술제(일본, 동경)
주 독일대사관초대전(독일 베를린) 강원도, 돛토리현 교류전 (춘천)
강원도서예대전초대작가전(춘천)
- 옥명준(부지부장/한국화) 강원도미술대전 추천, 초대작가전(춘천)
한 · 일우호미술교류전(미술 도야마현), 강원도 · 돛토리현 교류전(춘천)
- 고주리(부지부장/디자인) 강원도 미술대전추천, 초대작가전(춘천)
- 백종숙(한국화) 신사임당미술대전 우수상
- 김길자(문인화) 대한민국문인화대전(미협) 입선, 대한민국 문인화 전람회 특선
- 박흥기(서양화분과위원장) 개인전(강릉)
- 박동국(서양화) 개인전(서울), 강원도교원미전 추천작가상
- 이동수(서양화) 개인전(서울)
- 최낙민(서양화) 강원도미술대전추천, 초대작가전(춘천) - 2001년 인준
- 신동진(조각분과위원장) 강원도미술대전추천, 초대작가전 (춘천) - 2001년 인준
- 강익희(조소) 영랑호설화상징 조형물 공모 당선 (영랑호 설치)
- 강국보(조소) 강원도교원미전 추천작가상
- 김동하(서예분과위원장)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입선, 강원도서예대전 입선, 홍재서예대전 특선
- 박종칠(서양화, 서예) 강원도서예대전 특선
- 이행섭(서예) 강원서예대전 특선(추천작가 자격획득)
강원도교원미전 동상 <2000 금상> (추천작가 자격획득)
- 김은숙(서예) 강원도교원미전 은상 <2000 은상> (추천작가 자격획득)
- 김송금(서예) 강원도교원미전 은상 <2000 동상>, 홍재서예대전 특선
- 함연호(서예) 동아미술제 입선, 강원서예대전 운영위원
- 이선미(서양화, 서예) 강원서예대상전 우수상, 설악회호대회 대상, 대한민국 한글서예대전 입선

아이야, 청산(靑山) 가자

- 어머니에게 -



강 석 현

〈인물〉

아이, 여인(엄마), 도깨비1·2, 할미

〈무 대〉

엄마와 아이가 살고있는 단칸 방(房).

방구들 한쪽에는 보자기로 덮어놓은 밥상이 놓여져 있다.

무대 오른쪽의 방벽엔 괘종시계가 걸려있고,

그 아래로 솜이불을 개어놓은 궤가 보인다.

관객 쪽을 향한 정면의 벽에는 병풍이 세워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오래되어 낡은 4폭 짜리 병풍이다.

(병풍의 그림은 각각 다음과 같다 -좌측부터 호랑이를 그린

민화와, 두 명의 도깨비가 그려져 있는 그림과, 대나무 숲의

밤 풍경화와, 마지막으로 삼신할미인 듯한 노파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막이 오르면-방에 엎드려 누워있는 아이.

아 이: (무서운 꿈을 꾸고있는지)엄마...엄마...엄마(소리를 지르고 깨어난다)엄마?(주위를 둘러보면)

텅 비고, 어두운 방안의 세계.

아 이: (몸을 움츠리고)엄만 왜 이렇게 늦지?(모로 누우며)

엄마...빨리 와. 나 혼자 무서워. 심심해. (장난감 배를 손에 쥐고 움직인다)통-통-통-통. 통-통-통-통. 여긴 바다야. 넓은 바다야. (일어나)난 지금 배 타고 엄마 찾으러 간다.(방안을 몇 바퀴 돌다가 멈추고)응? 저기 섬이 보이네? 통-통-통-통.(밥상 있는 곳까지 가서)나는 지금 섬에 도착했어.(장난감 배를 밥상에 올려놓는다)그런데?(주위를 살피고)여기는 어딘데 이렇게 조용하지?(낮은 목소리로)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사이)칫, 아무 대답도 없잖아. 아이, 배고파.(밥상 위에 덮어놓은 보자기를 치우고)맛있겠다.(침을 삼키며 수저를 든다)

아이는 배가 상당히 고했던지, 밥그릇을 금방 깨끗이 비워버린다.

그러나 그것으론 양이 차지 않아 아이는 김치를 손으로 찢어, 입에다 넣고, 오물오물 씹는다.

김치까지 다 먹어버린 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보자기로 밥상을 덮는다, 다시 장난감 배를 갖고 논다.

아 이: (일어나 방안을 몇 바퀴 돌며)통-통-통. 나는 이 배의 선장이야. 통-통-통-통.(멈추면)아이, 어지러워라.(비틀대고)그런데 여긴 어디지? 왜 이렇게 조용



해?(사이)아이, 기분 나빠. 꼭 뭐 가 나 올 것만 같애.(뒹굴음친다)난 돌아갈래. 통-통-통-통.(다시 방안을 돈다)...(멈추어)여긴 또 어딜까? 왜 이렇게 캄캄하지? (사이)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사이)치, 모두 다 어디로 간 거야? 아, 생각났다(손뼉을 치고)이렇게 캄캄한 걸 보면 여긴 아프리카야.(주위를 살피며)그런데? 원주민들은 왜 하나도 안보일까?(천장을 쳐다보며)이봐, 너희들. 모두 어디에 숨었니? 괜찮아. 해치지 않을게. 나하고 놀자.(사이)같이 놀재두.(사이)응응? 왜 대답이 없지? (중얼거리고)너희들 나하고 놀기 싫단 말이지? 흥! 그럼 나도 너희들하고 안 놀아, 뭐. 잘 있어. 난 도로 간다.(방안을 돈다)통-통-통-통.(사이)...(멈추고)아이, 재미없어. 심심해.(벽에 등을 기대고 앉는다)...(사이)...(괘종시계가 울린다)...(시계를 쳐다보고)그런데. 엄만 왜 이렇게 늦지?(사이)졸려. (방바닥에 눕는다)...(깊은 잠에 빠진다)

병풍의 대나무 그림을 비추는 조명.

어디선가 서늘하고, 차가운 바람소리가 들려온다.

대나무 그림을 비추던 조명이 꺼지고 도깨비 그림을 비추는 조명.

도깨비1(소리): 녀석이 잠들었어.

도깨비2(소리): 그래.

도깨비1(소리): 답답한데. 우리 나가볼까?

도깨비2(소리): 그럴까?

도깨비1,2 방망이를 손에 들고 나타난다.

도깨비1: 췌, 조심.

도깨비2: 조심.

도깨비1: (아이를 바라보다)애, 정말로 자냐?(발로 툭 차고)

아 아:(꿈쩍 않으면)

도깨비1: 정말로 자나봐.

도깨비2: 꼬마야.(귀를 잡아당기며)내 말 들리니?

아 아: ..,

도깨비2: 꼬마가 깊이 잠들었군.

도깨비1: 안심해도 되겠지?

도깨비2: 그래.

도깨비1: 난 온몸이 근질거려.

도깨비2: 나도 그래.

도깨비1: 저 좁은 병풍 속에 몇 백년을 갇혀 지냈더니.

도깨비2: 온 몸이 다 쑤서오지 뭐야.

도깨비1: 너도 그렇지?

도깨비2: 응, 그래.(생각난 듯)그런데?

도깨비1: 그런데, 뭐?

도깨비2: 이 집 아줌마는 오늘 어디 갔다고?

도깨비1: 키키. 황부자집 부엌일 하러 갔지.

도깨비2: 그래? 그거 잘됐군.

도깨비1: 돌아오려면 한참이나 걸릴 거야.

도깨비2: 그 아주머니는 도통 잠이 없어서 말야.

도깨비1: 맞아. 우리가 저 병풍 속에서 빠져 나와 놀 틈이 없지.

도깨비2: 그 아주머니는 매일 바느질, 물레질. 그리고 또 뭐지?

도깨비1: 한숨질.

도깨비2: 맞아. (한숨)매일 그렇게 한숨질이지.

도깨비1: 그런데 이제부터 뭐하고 논다?

도깨비2: 글썄. 뭐하면서 놀아야 잘 놀았다고 할 수 있을까?(궁리를 하다가)...(잠든 아이의 얼굴에 시선이 쏠리고)크크.(웃는다)

도깨비1: (역시)킁킁. 그럼 너도?

도깨비2: 그래, 방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도깨비1: 그럼. 어디 시작해볼까?

도깨비2: 좋아.(방망이를 머리 위로 들고)붓나와라, 똑딱!(바닥에 내리친다)

도깨비1: (사이)...이상하다? 왜 여태 아무런 반응이 없지?



도깨비2: 글썸. 그 동안 사용을 안 했더니 이 방망이도 이젠
고물이 다 됐나?

도깨비1: 에이, 설마? 조금 더 기다려 보자구.(천장 위를 쳐
다보면)

아이, 일어난다. 도깨비들의 옆으로 가서 같이 천장을
본다.

무대 위로 붓이 던져지면-

도깨비2: 저기 있다!

도깨비1: 어서 가져와.

도깨비2: (붓을 가져와)자, 여기.(도깨비1에게 건네면)

아 이: (겉에서)그게 뭐야?

도깨비1: 응, 이거?

도깨비2: 임마, 넌 붓도 모르니?(아이를 보고)으악!

도깨비1: 꼬마다(붓을 던지고)어서 도망가자!

도깨비들, 병풍 뒤로 달아나면-

아 이: 가지 마.(쫓아가 도깨비1의 다리를 붙잡고)나하고
같이 놀자.

도깨비1: 뭐? 같이 놀자구?

아 이: 응. 나 심심해.

도깨비1: 꼬마야. 지금 한가하게 그런 농담할 때가 아니야.

도깨비2: (병풍 뒤에서 고개를 내밀고)그래.

아 이: 농담 아니란 말야. 난 심심해 죽겠단 말야. 그러니
까 나하고 놀아 줘.

도깨비1: 애가 정말인가 보네.

도깨비2: 그러게.

아 이: 안 그러면.

도깨비2: 안 그러면 뭐 어쩔 건데?

아 이: 엄마한테 모두 이를 거야.(병풍을 가리키며)저기에
도깨비 있다고 엄마 오면 다 말할 거야.

도깨비1: (심각해져)너는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냐?

도깨비2: 글썸. 그러면 안되지.

도깨비1: 그냥 같이 놀아줄까? 우리도 오랜만에 바깥구경
하잖아.

도깨비2: 그럼, 그럴까?

도깨비1: 그러자.

아 이: 이제 나하고 노는 거지?

도깨비1: 응. 방금 그러기로 결정했다.

아 이: 정말이지?

도깨비2: 그래.

아 이: 도망가면 안돼.

도깨비1: 넌 속고만 살았니? 놀아 줄 테니 이젠 고만 이것
좀 놓아주겠니?

아 이: 약속했다.(다리를 놓아준다)

도깨비1: 휴, 백년 감수했네. 근데 꼬마야.

아 이: 왜?

도깨비1: 너는 참 이상하다.

아 이: 뭐가?

도깨비1: 애들은 우리 얼굴만 보면 기겁을 하고 놀라서 도
망가는데 말야.(도깨비2의 얼굴을 잡고) 넌 이 얼
굴을 보고서도 무섭지 않니?

아 이: 아니.

도깨비1: 그래?

도깨비2: 거봐, 안 무섭다잖아.

도깨비1: 그것 참 별일이네.(고개를 가우뚱거린다)

아 이: (도깨비1의 손을 잡아 흔들며)아이, 우리 빨리 놀
아.

도깨비1: 그러자. 그런데 뭐하면서 놀지?

아 이: 재미있는 얘기 해줘.

도깨비1: 난 그런 거 모르는데.(도깨비2에게)넌 아는 것 있
냐?

도깨비2: 나도 없는데.

아 이: 그럼 뭐하지?

도깨비1: 그럼, 우리 춤출까?

도깨비2: 그러자!

아 이: 응, 좋아. 춤 춰.



아이와 도깨비들, 춤을 추기 시작한다.(그러잖아도 몸이
근지럽던 도깨비와 몹시 심심했던 아이는 어울려서 한
바탕 춤을 춘다.)

병풍 속의 대나무 그림을 비추는 조명.

어디선가 서늘하고, 차가운 바람소리가 들려온다.

대나무 그림을 비추던 조명 사라지고 호랑이 그림을 비
추는 조명.

순간, 방문 앞에 나타나는 그림자 하나!

소 리: 애야.

도깨비1:(놀라 멈추고)뭐, 뭐야?(도깨비2의 등뒤로 숨어)누
가 왔지?

도깨비2: 글썸, 아주머니가 그새 돌아왔나?

도깨비1: 뭐, 아주머니?

도깨비2: 응.

도깨비1: 그럼 큰일이잖아!

도깨비2: 큰일이지.

도깨비1: 그럼 뭐해? 빨랑 들어가야지!

도깨비2: 그래야지.(먼저 뛰어간다)

도깨비1, 뒤따라 서둘러 병풍 쪽으로 뛰어 들어간다.

다시 방에 혼자 남은 아이.

아 이: 누, 누구야?(방문 앞에 다가가)밖에 누구야?

소 리: 나다.

아 이: 엄마?

소 리: 응, 그래.

아 이: 엄마구나!

소 리: 그래 어미다. 어서, 문을 열어주렴.

아 이: 응,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걸쇠를 풀고 방문
을 열면)

머리수건을 쓰고 얼굴은 한쪽으로 돌린 채, 방문 앞에
서있는 여인.

아 이: 엄마.

여 인: 그래. 잘 놀았니?(방안으로 들어온다)

아 이: 아니. 심심해서 죽을 뻔했어.

여 인: 그래? 누구 찾아 온 사람은 없었고?

아 이: 없어. 그런데 무지 배고파, 밥부터 줘.

여 인: 밥?

아 이: 응. 빨리 엄마.

여 인: 그런데 어떡하지? 엄마가 오늘은 무척 피곤하구
나. 그러니 오늘밤은 그냥 자렴.

아 이: 치, 그런 게 어딴? 난 지금 무척 배고프단 말야.
그러니까 빨리 밥 줘. 밥 안 해주면 나 또 엄마 말
안 듣는다. (여인의 한쪽 팔을 붙잡고)그래도 좋
아? 싫지? 그러니까 빨리 밥해 줘.(떼를 쓰면)

여 인: (놀라)아니, 애가? 이거 얼른 치우지 못하겠니?(아
이의 팔을 뿌리친다)

아 이: 엄마...?(뒤로 물러나면)

여 인: (너무했다 싶어)애야, 그건 말이지.

아 이: 치, 엄마 미워! (뒤돌아서 훌쩍훌쩍 운다)

여 인: 그렇다고 우니?

아 이: 몰라, 엄마 미워!

여 인: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아 이: 몰라!

여 인: (아이를 달랠 방법을 생각하다가)...!(방바닥에 떨어
진 붓을 발견하고)...(놀라)이 붓! (붓을 들 고)이것
어디서 났지?

아 이: (뒤돌아 힐끔 보고)나도 몰라, 뭐. 안 가르쳐 줘.

여 인: (한참동안 붓을 바라보다가)...(부드럽게)배 고프했
지? 내 얼른 부엌에 가서 밥 해 가지고 오 마.

아 이: 싫어, 먹기 싫단 말야!

여 인: 그래, 내가 잘못했다.

아 이: (못 이기는 척)정말...?

여 인: 그렇대두. 그러니까 이제 그만 화 풀렴.

아 이: 히힃.(뒤돌아)메롱. 엄마, 나한테 또 속았지?

여 인: (정색하고)너 그럼?

아 이: 빨리 밥 줘, 엄마. 정말로 나 배고파 죽겠단 말야.



여 인: 나를 감쪽같이 속이다니! (노려보면)
 아 이: 엄마.(여인의 한 팔을 잡고)빨리 바압...(계속 보채면)
 여 인:(기겁을 하고)알았다. 알았으니, 제발 이 손은 놓거라.
 아 이: 정말이지? 이번엔 진짜지?
 여 인: 알았다.(웃매무새를 고치고)내 얼른 밥해 가지고 올 테니 넌 여기서 꿈쩍 말고 기다리거라. 알았지?
 아 이: 알았어 엄마. 난 꿈쩍 말고 방에 있을 테니까 엄마는 빨리 부엌에 나가서 따뜻한 밥하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 줘.
 여 인: 그래 알았다. 우선 이 밥상부터 치우고.(밥상을 들고)...(나가려다)참, 애야.
 아 이: 응?
 여 인: 혹시나 해서 하는 이야기 다만. 내가 부엌에 있는 사이에 말이다. 저 병풍에다 붓 같고 장난하면 안 된다. 알았지?
 아 이: 붓?(병풍과 붓을 번갈아 바라보며)왜?
 여 인: 그러면 큰일 나요(성을 내면)
 아 이: 아이, 깜짝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여 인: 아무튼, 내 말 알아들었지?
 아 이: 알았어 엄마. 장난 안 할게.
 여 인: 암, 그래야지.(밖으로 나간다)
 아 이: (문 밖에 고개를 내밀고)...(밖을 쳐다본다)...(문을 닫고)히히. 장난쳐야지.(붓을 주워 들고)... (병풍에 다가간다)

병풍 속의 대나무 그림을 비추는 조명-
 어디선가 서늘하고, 차가운 바람소리가 들려온다.
 부엌에서는, 솥뚜껑에 깔 가는 소리.

아 이: 무슨 소리지?(뒤돌아보면)

대나무 그림을 비추던 조명 사라지고 호랑이 그림을 비추는 조명.

아 이: (병풍 그림을 보고)어흥! 호랑이는 무서워.

호랑이 그림을 비추던 조명 사라지고 도깨비 그림을 비추는 조명.
 아이, 도깨비 그림 앞으로 이동한다.

아 이: 킁킁.(웃고)

도깨비1의 이마에 수많은 점들을 찍어놓고,
 도깨비2의 턱에다 수염을 그려 놓는다.
 아이가 장난을 하고있을 동안,
 도깨비 그림의 조명 사라지고 할미의 그림을 비추는 조명.

할미(소리): 애야.

아 이:(뒤돌아)누구야?

할미(소리): 애야.

아 이: 거기 누구야?

할미(소리): 애야, 조심하거라.

아 이: 응? 어디서 나는 소리지?(병풍의 뒤쪽을 살펴본다)

할미 그림을 비추던 조명 꺼지고 대나무 숲의 그림을 비추는 조명.
 어디선가 서늘하고, 차가운 바람소리가 들려온다.

아 이: (병풍 앞으로 나와)이상하다? 분명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할미(소리): 애야.

아이(소리): 또 들리네?(병풍 뒤쪽으로 걸어가)누구세요?

대나무 숲을 비추던 조명 사라지고 할미의 그림을 비추는 조명.

할 미: (병풍 뒤에서 걸어 나와)몸조심해라.



할미를 비추던 조명 사라지고 대나무 숲의 그림을 비추는 조명.

어디선가 서늘하고, 차가운 바람소리가 들려온다.

이때, 방문 앞에 나타나는 호랑이 그림자!

할 미: (놀라)애야, 위험하다! 어서 피해! (병풍 뒤로 모습을 감춘다)

대나무 그림을 비추던 조명 사라지고 호랑이 그림을 비추는 조명.

아이(소리): 누구세요?

방문이 열리자, 여인이 밥상을 들고 안으로 들어온다.

여 인: (아이가 안 보이자)아니, 이 아이가 어디 갔지?(밥상을 내려놓고)애야? 어딴니?(두리번거리며)밥 해왔다. 밥 먹어야지.

아이(소리): 엄마야?

여 인: 그래, 너 지금 어딴니?

아이(소리): 나 여기 있어 엄마. 지금 나갈게.(병풍 뒤에서 나온다)

여 인: (놀라)아니, 너!

아 이: 엄마.

여 인: 너 대체 그곳에서 무얼 하고 있었지?

아 이: 이상해.

여 인: 이상하다니?

아 이: 어디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

여 인: 무슨 소리라니?

아 이: 나도 몰라.(밥상을 보고)아, 맛있겠다.(밥상머리에 앉아 먹는다)우와, 맛있다. 근데 엄마는 밥 안 먹어?

여 인: (생각하다)응? 방금 뭐라고 말했지?

아 이: 엄마.(오물오물)밥 안 먹냐구?

여 인: 난 됐으니 너나 많이 먹으렴.

아 이: 그럼 엄마.(오물오물)그곳에서 맛있는 것...많이 먹고 왔어?

여 인: 그래. 난 그곳에서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왔으니까 너나 많이 먹어.

아 이: 응, 엄마.

여 인: (밥 먹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다)...(뒤돌아 서서)...(팔 소매 안에 감춰진)...(날카로운 손톱을 꺼내 든다)

아 이: (먹다말고)엄마.

여 인: 응?(다시 손톱을 감추고)왜 그러니?

아 이: (김치를 들고)이 김치 좀 찢어 줘. 너무 길어서 먹기가 불편해.

여 인: (코를 막고)에구, 난 그 신내나는 고약한 냄새가 싫더구나. 그러지 않아도 그걸 땅속의 장독 에서 꺼낼 때, 얼마나 역겹던지.

아 이: 왜?

여 인: 자꾸만 헛구역질이 나오니까 그렇지.

아 이: 헛구역질?

여 인: 그래, 그러니까 네가 직접 찢어 먹으렴.(등을 돌리고 앉아)아까도 말했지만, 엄마는 오늘 따라 꽤 피곤하구나.

아 이: (걱정스러운 듯)엄마, 진짜 많이 아파?

여 인: 아니, 그렇게 많이는 안 아프고. 조금.

아 이: 그럼 내가 밥 먹은 뒤에. 엄마 등 두드려주고, 다리도 주물러 줄까?

여 인: 아, 아니다! (질색하고)어서 밥이나 먹으래두 그런다.

아 이: 응, 엄마.(다시 수저를 움직이면)

여 인: (안도의 한숨)...,

아 이: 나 하루종일...(오물오물)엄마 기다리느냐고. 심심해 죽을 뻔했어.

여 인: 그랬니?

아 이: 응.

여 인: 왜? 동구밖에 나가, 아이들하고 같이 뛰어놀지 않고서?



아 이: 싫어, 난.
 여 인: 왜 싫은데?
 아 이: 개들이 막 놀리니까 그렇지.
 여 인: 뭐라고 놀리는데?
 아 이: 아빠 없다고 막 놀려.
 여 인: 그래도 아이들하고 같이 뛰어 놀아야지.
 아 이: 난 싫단 말야.
 여 인: 그래도 이렇게 방안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잖니?
 아 이: 그건 그렇지만...(손가락을 놓고)나 이제 그만 먹을래.
 여 인: 아니 왜, 더 먹지 않고서?
 아 이: 이젠 먹기 싫어졌어.
 여 인: 그러럼. 먹기 싫으면 먹지 말아야지.(일어나 밥상을 들고)...(문 앞에 선다)문 좀 열어 주겠니?
 아 이: (시무룩한 얼굴로 일어나)...(방문을 연다)
 여 인: 조금만 기다리렴. 설거지 끝나면 엄마가 이부자리 깔아 줄 테니.
 아 이: 응..., (여인이 방을 나가자)...(방문을 닫고)...(방바닥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병풍 속의 할미그림을 비추는 조명.

할미(소리): 애야.
 아 이: ...누구야?
 할미(소리): 조심해야 해.
 아 이: 무슨 소리지?
 할미(소리): 애야, 위험하다.
 아 이: (귀를 막고)이상해.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와.

할미 그림을 비추던 조명이 꺼지고 대나무 그림을 비추는 조명.

어디선가 서늘하고, 차가운 바람소리가 들려온다.
 아이가 병풍 쪽에 다가가 선다.
 이때, 방문 앞에 나타나는 호랑이 그림자!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아 이: (중얼거린다)엄마...이상해...귓속에서 자꾸...무슨 소리가 들려와...바람소리 같은 것이...자꾸만 내 귀에...들려.
 여 인: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다)

스르륵, 사라지는 대나무 그림의 조명.

여 인:(아이를 보고)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아 이: 이상해.
 여 인: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이부자리를 꺼내들고)밤이 깊었다.(방바닥에 이불을 깔다)이젠 자야지.
 아 이: 정말 이상해.
 여 인: 뭐가 또?
 아 이: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
 여 인: (이부자리를 펴다말고)이상한 소리라니?(잠시 귀 기울이고)...내 귀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 이: 난 들려. 지금도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 걸.
 여 인: 지나가는 바람소리를 니가 잘 못 들었겠지.
 아 이: 아닌데...,
 여 인: 아니긴. 하긴 그럴 만도 하지. 거의 하루종일을 방안에 혼자 있다보니. 그만 네 귀속에서 환청이 들리는 거야.
 아 이: 환청? 그게 뭐야?
 여 인: 상상이란다.
 아 이: 이렇게 똑똑히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여 인: 그게 바로 환청이란다.
 아 이: 그래도 이상해, 나는.
 여 인: 애긴 그만하고. 자, 어서 누우렴. 이젠 자야지.
 아 이: 응.(옷을 벗고 잠자리에 든다)
 여 인: 어서 자렴.(이불을 덮어주며)꿈나라로 가야지.
 아 이: 재미있는 얘기해 줘.
 여 인: 이야기?
 아 이: 응.



여 인: 엄청 피곤하대두 그러네.
 아 이: 싫어. 난 꼭 듣고 잘래.
 여 인: 알았다, 그 황소고집을 누가 말리겠니? 그럼 무슨 얘기를 해준다? (생각하고)반달 곰 이야기 해주련?
 아 이: 아니. 그건 들었어.
 여 인: 그럼 슬픈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아 이: 아니. 그것도 들었는걸.
 여 인: 그럼 무슨 얘기를 해준다?
 아 이: 아이, 빨리 재미있는 이야기 해줘.
 여 인: 알았다. (생각하고)그럼 불쌍한 호랑이 부부 이야기는 들어봤니?
 아 이: 아니, 그건 못 들었는데. 그거 해줘.
 여 인: 좋아, 그럼 눈부터 감으렴. 이야기는 꿈나라로 가면서 들어야 재밌지.
 아 이: 응.(눈을 감고)나 눈 꼭 감았어.
 여 인: 지금으로부터 옛날, 아주 옛날에.
 아 이: 응, 아주 옛날에.
 여 인: 이 땅위엔, 이 바다 위엔 말이다.(아이에게)아직 잠 안 들었지?
 아 이: 응, 나 아직 잠 안 들었어.
 여 인: 어서 자려무나.
 아 이: 어서 이야기.
 여 인: 옛날에 말야, 호랑이 부부가 살고 있었어.
 아 이: 살고 있었는데.
 여 인: 넌 말하지 말고 가만히 듣기만 해야지. 잠은 안 잘 거야?
 아 이: (눈을 떠)그럼 얘기는 언제 듣고?
 여 인: 그래도 이 녀석이?(노려보며)그럼 이야기는 안 해준다.
 아 이: 알았어.(도로 눈감고)가만있으면 되잖아.
 여 인: 진작 그래야지.
 아 이: 어서 이야기.
 여 인: 아비 호랑이는 매일 바닷가에 나가, 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단다.

아 이: 호랑이가 바다에 나갔어?
 여 인: 그래, 옛날에 그랬대.
 아 이: 무슨 호랑이가 그렇지?
 여 인: 또 말한다.
 아 이: 알았어. 이젠 듣기만 할게.
 여 인: 녀석.(아이의 얼굴을 내려보다가)...(쓰고 있던 머리수건을 벗는다)
 아 이: 아이, 뭐해? 어서 이야기.
 여 인: 응?(가볍게 놀라)그래, 그런데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하다 말았지?
 아 이: 호랑이가 바다에 나갔어.
 여 인: 오, 그래. 거기까지 얘기했구나.
 아 이: 그런데 불쌍한 호랑이지 뭐야. 산에도 먹을 것이 많을 텐데, 왜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먹지?
 여 인: 그러게 말이다.(한숨짓는다)
 아 이: 아이, 뭐해 엄마?
 여 인: 응응?
 아 이: 어서, 이야기.
 여 인: 그래, 알았다.(일어나)...(방안을 걸으며)니가 듣고 싶다니. 말해주마. 호랑이 부부의 기구한 사랑의 얘기를.(노래한다)

옛날 이 땅위엔 이 바다 위엔
 한 쌍의 호랑이 부부가 살고 있었지
 그들의 사랑만큼 꼭 껴안아도 좋을 아름다운 이 땅덩어리
 리와 그들의 행복만큼 서로를 멀리서 바라만 보아도 괜
 찜을 푸른 저 바다 위에서
 그들은 하루마다 돌아오는 생이별을 나누었지
 아비는 노를 저어 먼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가느라 집을
 비우고 어미는 호미를 들고 깊은 숲 속의 돌밭을 가느라
 땅을 비우고
 동쪽 아침의 해가
 서쪽 하늘의 산머리 아래로 떨어져 내릴 때까지



여 인: (뒤돌아)애야, 듣고있니?(아이에게 다가가)드디어 잠이 들었군. 이제야 말로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왔구나.(손톱을 꺼내)미안하다, 애야. 너는 이제 죽은 목숨. 그러나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거라. 내가 살자니 너를 죽일 수밖에 없구나. 어찌겠니. 이것이 너의 운명인 것을.(아이의 목을 조른다)

병풍 속의 대나무 그림을 비추는 조명.

어디선가 서늘하고, 차가운 바람소리가 들려온다.

할미(소리): 애야, 어서 일어나!

대나무 그림을 비추던 조명이 사라지고 할미 그림을 비추는 조명.

여인, 고개를 획 돌리고 병풍 쪽을 쳐다본다.

여 인: 아까부터 누군가 했더니!(일어나)이놈의 할미, 또 내 일에 방해를 놓아?(노려보며 병풍 뒤로 사라진다)

병풍이 몹시 흔들리고, 호랑이의 사나운 포효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할미의 비명소리.

할미(소리): 아악!

여 인: (병풍 뒤에서 걸어나와)못된 할망구 같으니.(손에 움켜 쥔 머리카락을 바닥에 떨어뜨린다)...(다시 아이에게로 다가가)...(아이의 목을 다시 조르면)

할 미: (머리는 산발이 된 채)...(병풍 뒤에서 나타나)그만 두지 못해?

여 인: (노려보며)이 할망구. 정말 귀찮게 굴 거야?

할 미: 제발 부탁이야. 아이를 놓아줘. (애원한다)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여 인: 흥! 그럼, 내가 배고픈 건 무슨 죄지?

할 미: 좀 참아. 아니면 다른 먹이를 찾아보던가.

여 인: 다른 먹이를 찾아보라고? 대체 지금 먹을 것이 어

디에 있단 말야?

할 미: 저 산과 들에.

여 인: 호-호! (웃음을 그치고)저 산에 먹을 것이 있으면, 내가 왜 여기까지 내려와서 인간의 피를 보려고 하지?

할 미: 그건 알지만. 그러나, 아무튼. 이 아이는 안돼.

여 인: 또 방해할 생각은 말아, 할미. 당신의 말은 이젠 지긋지긋하니까!

할 미: 너는 도대체 언제라야 정신을 차리겠니?

여 인: 내가 언제 정신을 차리겠냐구? 흥!(일어나)할망구는 좋을 거야. 인간들이 갓바치는 음식 때문에, 할미는 죽을 때까지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 하지만 난 다르단 말야. 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짐승이란 말야.

할 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불쌍한 아이까지 죽이면. 애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여 인: 그야 내 알 바 아니지. 배고픔을 모르는 할미가 참견할 일이 아니란 말야.(손톱을 들어)새벽닭이 울기 전에, 난 어서 이 아이를 잡아먹어야 겠어. 그러니까 얼른 썩 비켜서, 할망구!(다가가면)

할 미: 안돼.(옆으로 피하며)그건 안 돼.

여 인: 안돼? 그 말은 그럼 나하고 붙어보겠단 말야?

할 미: 할 수 없지. 나도 이 아이를 지키려면.

여 인: 깥-깥-깥! 정말 나와 싸우겠대구? 늑은 할망구가?

할 미: 못할 것도 없지.

여 인: 좋아. 그럼 어디 덤벼보시지.

두 여자, 아이를 가운데 놓고 서로 노려보며 둥그렇게 원을 그린다.

여인이 먼저 할미에게 달려들면, 무대 급하게 암전- 암전 속에서 호랑이의 포효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할미의 비명.

(아주 오랜)사이, 서서히 명전-

병풍 속의 대나무 그림을 비추는 조명.



어디선가 서늘하고, 차가운 바람소리가 들려온다.
대나무 그림을 비추던 조명 사라지고 도깨비 그림을 비추는 조명.

도깨비1(소리): 아이고, 씨끄러워서 어디 잠을 잘 수가 있어
야지?
도깨비2(소리): 그러게 말야. 나도 그만 잠에서 깬지 뭐야.
도깨비1(소리): 근데 무슨 일로 저 난리를 피우는 거야?
도깨비2(소리): 글썄...,이젠 아주 조용한데?
도깨비1(소리): 그러게?
도깨비2(소리): 어떻게 된 거지?
도깨비1(소리): 궁금한데. 우리 나가볼까?
도깨비2(소리): 그럴까?

방망이를 어깨 위에 얹고 등장하는 도깨비1,2.
(그들의 얼굴은 아이의 장난으로 인해 우습게 되었다)

도깨비1: 싸움들 하다말고 다들 어디 갔지?
도깨비2: 글썄 말야.
도깨비1: 야, 꼬마야.(발로 툭 찬다)
도깨비2: 꼬마는 깨워서 어쩔려구?
도깨비1: 깨워서 물어 보려고.(발길질)야, 꼬마야. 그만하고 일어나.
아 이: (부시시 깨어나)누구세요? (눈을 비비며)엄마야?
도깨비2: (얼굴 갇다대고)너는 내가 엄마로 보이니?
아 이: 으음.(다시 쓰러진다)
도깨비1: 어라? 이 놈 좀 보게. 깨웠더니 또 금방 자?
도깨비2: 자는 게 아니라 내 얼굴 보고서 기절한 거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중얼거리면)
도깨비1: (갑자기)크크-.
도깨비2: 왜 웃어?
도깨비1: 그러고 보니. 니 얼굴이 정말 우습게 되었다.
도깨비2: 내 얼굴이? 내 얼굴이 뭐 어때서?(얼굴을 만지다가 도깨비1을 보고)크크! 그러는 네 놈은. 얼굴이 그게 뭐냐?

도깨비1: 내가 뭐 어때서?
도깨비2: (손거울을 꺼내)이 거울 좀 봐라.
도깨비1: 으악!(놀라고)누가 그랬어, 내 얼굴!

도깨비1,2, 거울 속의 얼굴을 보며 킬킬대며 웃는다.
도깨비 그림의 조명 사라지고 대나무 그림을 비추는 조명.
어디선가 서늘하고, 차가운 바람소리가 들려온다.

도깨비1: ...이게 무슨 소리지?
도깨비2: 글썄. 기분이 어째 으슬으슬한데.

순간, 방문 앞에 나타나는 호랑이 그림자!

도깨비1: (그림자를 보고)으악! 호랑이다!
도깨비2: 도망가자!(먼저 뛰어가고)

도깨비1, 뒤따라 병풍 뒤로 사라진다.(사이)
여인, 문을 열고 들어온다.

여 인: (방에 들어와)...(맨 바닥에 엎드려 잠든 아이를 보고)차돌아, 자니?
아 이: 엄마...?(일어난다)
여 인: 그래, 엄마야. 그런데 왜 이렇게 자니? 이부자리 펴고 편히 자야지.
아 이: 나 졸려.
여 인: 엄마가 빨리 이부자리 펴주마.(이부자리를 펴고)
아 이: 나 무서운 꿈 꿔, 엄마.(다시 쓰러져 눕는다)
여 인: 그래, 엄마 왔으니 됐다.(베개를 갖다놓고)자, 됐다. 이부자리 깔았으니까 이리 와, 자렴. 차돌아?(아이를 보면)
아 이: (금세 잠들어 있다)...,
여 인: (다가가)...(아이의 얼굴을 바라본다)녀석두.(머리카락을 쓸어주며)그새를 못 참고.(아이를 안 아서)어 이구, 무거워라.(잠자리에 눕는다)녀석, 언제 이렇



게 컸누.(아이의 이마에 입 맞추고) 불쌍한 내 새끼.(웃을 벗고 불을 끈다)

(아주 오랜)사이, 무대 명전- 여인이 다시 웃을 입고있다.

문 밖에서는 황량하게 불어오는 찬 바람소리.

여 인:(밖을 보며 깊은 한숨)

아 이: (일어나)엄마. 일 나가?

여 인: (고개 돌려)깨어났구나.

아 이: 응.(하품)

여 인: 왜 좀 더 자지. 아직 날 밝으려면 멀었어.

아 이: 엄마. 오늘 반찬은 뭐야?

여 인: 녀석두. 그저 먹는 생각뿐이지.

아 이: 아직 안 했어?

여 인: 이제 부엌에 나가서 해놓을 거야.

아 이: 뭔데, 오늘 반찬은?

여 인: 뭘까? 알아 맞춰 보렴.

아 이: 콩나물?

여 인: 아니, 차돌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아 이: 오뎅이야? 아이, 신나라.(손뼉을 친다)

여 인: 녀석, 그게 그렇게 좋니?

아 이: 응. 얼마나 맛있는데.

여 인:(물끄러미 아이를 쳐다보다)그런데 차돌아.

아 이: 응?

여 인: 아니다. 아무 것도.

아 이: 뭔데, 엄마?(다가가면)

여 인: (아이를 껴안고 안고)차돌아.

아 이: 응?

여 인: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아 이: 왜?

여 인: 주인이, 이 집주인이.

아 이: 할머니가 왜?

여 인: 할머니가 있지? 글썄 이 달 말까지 밀린 방 값을 모두 내라는 구나.

아 이: 밀린 방 값?

여 인: 그래, 방 값. 만약 그때까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 방을 비워달라는 구나.

아 이: 그럼 돈주면 되잖아.

여 인: 그런데 엄마는 돈이 없지 뭐니. 아무리 애를 쓰고, 시장에 나가 나물도 팔고, 떡도 팔고. 사방공사 일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도. 너와 나, 달랑 두 식구 입에 풀칠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눈물을 보이면)

아 이: 엄마. 울지마.

여 인: 차돌아, 우린 이제 어쩌면 좋지?

아 이: 괜찮아. 차돌이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오면 돼.

여 인: 녀석두.(아이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진다)

병풍 속의 대나무 그림을 비추는 조명.

어디선가 서늘하고, 차가운 바람소리가 들려온다.

여 인: (방문 쪽을 보며)밖엔 지금 저렇게 매운 고추바람 불어오고. 무서운 동장군이 우뚝 버티고 섰는데. 이 엄동설한에, 우리 모자는 집도 없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지?

아 이: 엄마....

여 인: (한숨짓고) 엄마는 그게 걱정이구나.

아 이: 엄마....

여 인: 차돌아.(아이를 꼭 안는다)

무대 깊은 암전.

(아주 오랜)사이- 다시 무대 명전.

텅 빈 방안, 아이가 엎드려서 숙제를 하고있다.

병풍의 대나무 그림을 비추는 조명.

어디선가 서늘하고, 차가운 바람소리가 들려온다.

대나무 그림을 비추던 조명이 사라지고 할미 그림을 비추는 조명.

할미(소리): 애야.

아 이: (고개 들어)누구야?



할미(소리): 나다.

아 이: (일어나)...(방문을 열면)

문밖에서 아이를 찌려보고 서있는 할미.

할 미: (건조하게)엄마는?

아 이: 일 갔어요.

할 미: 언제 오는데?

아 이: 몰라요.

할 미: 엄마 돌아오면 내가 좀 보잔다고 해라.

아 이: 무슨 일인데요?

할 미: 넌 몰라도 돼. 꼭 전해. 까먹지 말고.

아 이: 알았어요.(아이가 문을 쿵, 닫는다)...(연필을 던져
놓고)...(장난감 배를 들어)통-통-통-통.(방안을 몇
바퀴 돈다)...(멈추고)...(시무룩한 얼굴로)...(병풍 앞
에 다가간다)...(호랑이 그림을 보며)엄마, 주인집
할머니가 엄마 오면 보재.

순간, 방문이 '왈칵' 열리고 다시 얼굴을 내미는 할미.

아 이: (놀라)...!

할 미: 엄마 들어오면, 오늘까지 밀린 방 값 모두 내야한
다고 해라.

아 이: ...,

할 미: 꿀 먹은 벙어리냐? 왜 대답이 없어?

아 이: (울먹이며)예.

할 미: 잊지 말고 꼭 전해.(거칠게 방문을 쿵, 닫아버린다)

아 이: 엄마.(뒤돌아 등을 보이고)...(방벽에 기대어 서서
운다)

병풍 속의 대나무 그림을 비추는 조명.

어디선가 서늘하고, 차가운 바람소리가 들려온다.

대나무 숲을 비추던 조명 사라지고, 할미 그림을 비추는
조명.

아 이: 엄마....

할미(소리): 울면-안돼-애아-울지-마라.

벽에서 패종시계가 울린다.

할미 그림을 비추던 조명 사라지고 호랑이 그림을 비추
는 조명.

방문 앞에 여인의 그림자가 나타난다.

- 幕 -

축 하 합 니 다

지난 11월 17일 속초시가 공모한 속초관광사진 공모전에 많은 사진작가가 응모하여 60여명이 당선되었다. 전국에서 응모한 많은 작품중 속초출신 작가의 작품이 18점이나 당선되었다. 속초예술지는 이를 기려 당선작가를 매년 예술지에 소개하기로 했다.

(가 나 다 순)

당선내역	성 명	주 소	근 무 처	비 고
은 상	김 성 학	속초 교동대우아파트	프리랜서	
가 작	김 은 정	금호동 서울 대명2차	세기사	설악사진동우회원
입 선	김 한 기	교동 628-3	속초시청	
가작1, 입선1	석 경 순	조양 성호아파트	교수	
입 선	안 두 성	중앙동 482-17	수협	청봉사진동우회원
동 상	유 홍 균	교동 774-30	백남 스튜디오	설악사진동우회원
입 선	윤 순 이	청학동 642-64		
입 선	이 종 건	대명 늘푸른 아파트		
입 선	장 규 호	조양 부영아파트	속초무역	설악사진동우회원
입 선	장 상 기	교동 현대아파트	교사	
입 선 2	최 상 수	속초 교동 9-3	대학생	
입 선	최 용 철	청학동 642-64	속초시청	속초사진협회원
입 선	최 은 주	속초 교동 9-3	대학생	
입 선	최 홍 영	중앙동 476-9	명성사	속초사진협회원
입 선	황 동 석	중앙동 479-18	자영업	속초사진협회원
입 선	황 병 진	교동 대양코스모스	속초시청	속초사진협회원



고주리 〈흔적(痕迹)〉 종이 위에 혼합재료 60×45cm 2001 개인소장

속초예술

제2호(2001년)

www.artsokcho.com

-
- 발 행 : 장 규 호
 - 편 집 : 박 중 성
 - 표 지 화 : 고 주 리
 - 표지디자인 : 김 광 희

< 비 매 품 >

이 책은 강원문화재단 및 속초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 되었음.

한국예총속초지부

THE FEDERATION OF ARTIST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KOREA, SOKCHO BRANCH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 속초시문화회관 내

전화 : (033) 631-8070 / FAX : (033) 632-8072

e-mail : art-217@hanmail.net



왜 풍경에는 물고기가 달려있을까?

자나 깨나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 죽어서 까지도 눈을 감지 않는 것이 물고기이기에 수행자들은 이 깨어있는 것의 정신을 스스로 일깨우기 위해 산사의 풍경 끝에 물고기를 매달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 깨어있고자 하는 자세를 수협도 본받기 위해 다각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 조정과 낡은 관행을 깨는 노력, 그리고 고객사랑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끊임없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달라진 수협, 깨어있는 수협을 만나보십시오.



633-1271~5



바다사랑 고객사랑

속조시 수산업협동조합